


3-30-2001

**한국 기독교의 통일정책과 북한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백령도 진촌
교회를 중심으로**

Woong Ki Min 민웅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민웅기, "한국 기독교의 통일정책과 북한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백령도 진촌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EVANGELIZA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JINCHON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WOONG KI M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March 30, 2001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EVANGELIZA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JINCHON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WOONG KI MIN

MARCH 2001

한국 기독교의 통일 정책과 북한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백령도 진촌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민 응 기

2001년 3월

Abstract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Evangeliza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Jinchon Presbyterian Church

Woong Ki Min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described and analyzed the Korean church's efforts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evangelization from histor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Jinchon Presbyterian Chu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Korean church some insights for the North Korea miss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part will describe the biblical foundation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Second part will describ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South Korea for national unification. Third part will delineate and analyze the mission strategies of Korean church for the North Korea. The last part will describe the mission policy and plan of Jinchon Presbyterian Church for the North Korea mission.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hat Korean church needs to develop a corporate and concrete mission strategies for the North Korea mission. Especially, the role of Jinchon Presbyterian Church is emphasized because of its strategic location and vision for the North Korean mission. Jinchon Presbyterian Church is located on the Baekryung Island, the most northern part of South Korea. It has a long history of 97 years. It is making a mission strategy for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often described as a troublemaker of peace, a land with food shortage, and a country with one of the most unreached populations in the world. But the rest of the picture is that North Korea is a nation with hope for the jubilee year, a land blessed with the most beautiful scenery and rich natural resources, and a country whose capital city was once called "the Oriental Jerusalem." North Korea as a nation appears

to be a prodigal child who was long left the Lord for historical materialism. But in our prayer we hope that her people will return in realization of their spiritual starvation, and we know the time is coming when, in a time of reconciliation, we will see them in their best robes, rings on their hands, and sandals on their feet.

Theological Mentor : Jeong Kii Min, Ph.D.

감사의 말씀

먼저 목회와 더불어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 인내하시며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학문적인 도움을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경 신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고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의 목회의 여정 속에 삶과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 눈물어린 기도로 내조해 온 아내 김용자 사모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겪는 어려운 과정들을 인내하며 용기와 위로를 준 사랑하는 다섯 자녀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제공해 주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도록 만든 진춘 교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늘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들, 그리고 본 논문의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학교 관계자 분들과 자료 수집에서 교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3월 민 웅 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진행 과정	2
제 2 장 성경에 나타난 하나 됨의 신학	3
제 1 절 하나 됨에 대한 성경적 근거	3
1. 구약의 선민 공동체	4
2. 신약의 종말론적 메시아적 공동체	6
제 2 절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신학적 근거	9
제 3 절 평화 신학으로서의 통일 신학	13
1. 성경의 평화 이념	13
2. 정의로운 평화	18
제 4 절 하나 됨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	21
1. 영적 통일성	21
2. 상호 인정과 교제	22
3. 화해적 통일성	22
4. 조직적 통일성	23
제 3 장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정부 정책	24
제 1 절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역사적 고찰	24
제 2 절 북한 공산당의 분단 고착화와 민족 이질화	26
제 3 절 국토 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28
1. 역대 남한 정권의 통일을 위한 정책	28
2. 최초의 평화 통일을 위한 승공 정책과 국민의 각오	31
3.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정상회담의 성공	35

제 4 장 한국 기독교의 통일 정책	38
제 1 절 한국 기독교의 통일관	38
1.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통일관	38
2.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의 통일관	39
제 2 절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과 성과	40
1.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조직 활동과 통일·선교 정책	40
2.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조직 활동과 통일·선교 정책	42
제 3 절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 방향과 반성	43
1.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43
2. 북한 교회에 대한 이해	44
3. 한국 교회에 대한 이해	44
4. KNCC에 대한 이해	44
5. 미군 철수에 대한 이해	45
6. 양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45
제 5 장 한국 교회와 북한 선교	47
제 1 절 폐쇄된 북한 접촉의 어제와 오늘	47
1. 미국 시민 한인 목사들의 초기 북한 왕래	47
2.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접촉과 방문	49
제 2 절 북한의 기아질병 해소를 위한 구호 활동	51
1. 한기총의 북한 동포를 위한 구제 캠페인	51
2. 한국 교회 북한 돕기 단체의 구호 실태	52
제 3 절 대북한 간접 선교를 위한 각 단체의 전략	53
1. 한기총의 경우와 그 실적	53
2. NCCK의 경우와 그 실적	57
3. 기타 북한 선교 단체의 경우	63
4.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방향과 반성	65

제 6 장 통일 이후의 북한 선교 전략	68
제 1 절 북한 동포를 향한 한국 교회의 자세와 사명	68
1. 동포애를 통한 협력과 봉사의 자세	68
2. 교육·의료·복지 선교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정착화	70
제 2 절 북한 선교를 위한 당면 문제와 대책	72
1. 옛 북한 3,040교회 재건을 위한 대책	72
2. 각 교단 선교의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76
3. 세계 속의 복음 선진국 지향	80
제 7 장 백령도 진촌 교회의 대북 선교 정책	82
제 1 절 백령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82
1. 백령도의 어제와 오늘	82
2. 백령도의 기독교 전래와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현	83
3. 대북 선교의 기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호조건	86
제 2 절 백령도 진촌 교회의 현황과 대북 선교의 청사진	88
1. 통일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	88
2. 진촌 교회 수련관의 북한 선교 기지화	89
3. 전국 교역자를 대상으로 대북 선교 의식화 운동 전개	91
제 8 장 결 론	93
제 1 절 통일·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	93
1. 개교회 차원의 대북 선교 관심 진작	93
2. 각 교단 총회의 대북 선교 적극 참여	95
제 2 절 대북 선교의 성경적 과제와 한국 교회의 책임	97
1.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지향	97
2. 남한 교회의 물량주의와 우월주의 문제	98
3. 시장 원리에 따른 선교 전략	100

부록 1	103
부록 2	106
부록 3	118
부록 4	120
참고문헌	121
VITA	12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으로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900번 정도 외침을 받아 왔다. 그러나 외세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켜 온 것은 한국 민족 특유의 투지력과 단결심이 가져다 준 열매였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은 20세기초 일본의 침략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의 역사를 감내해야 했다. 일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륙의 발판으로 조선을 이용했고 나아가 동양 대 공영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세계 정복을 시도하였다. 일제는 여기에 같은 목적을 갖은 독일과 이태리와 더불어 5대주 6대양에서 미·소·영·불을 위시한 연합군을 상대로 대전을 벌렸으나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한국은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미소 강대국은 그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우리의 국토를 38도선에서 양분하여 진주함으로써 또 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미소 양대국의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된 한국은 냉전 체제의 희생양으로 이념적 철의 장막을 가운데 둔 채 북에는 공산주의 남에는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정권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역사를 감수해야 했다. 3년 동안 치러진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전란으로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갔고 거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온 데다가 일 천만의 이산가족을 남겨야 하는 쓰라린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남북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 되었다. 이같은 남북의 냉전과 대치 상황은 남북의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특히 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

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6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민족의 통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선지자적인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전후로 하는 북한 선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여기에 본 논문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자는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백령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이 크다. 백령도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제목을 정하고 논문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진행 과정

본 논문의 범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분단을 배경과 현 상황을 기술하는 역사적인 연구의 범위로서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침략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남북 분단의 역사와 통일 정책을 기술한다. 둘째는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북한 선교 정책을 기술함에 필요한 단체인데 크게 두 개의 단체, 즉 NCCK로 통칭되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기총으로 불리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고 나가 통일 후에 전개될 선교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논문의 전개를 소개하면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하고 2장에서는 통일(하나 됨) 신학의 성경적 기초를 기술할 것이며 3장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을 소개한다. 4장은 한국 기독교의 통일 정책으로 KCCK와 한기총의 통일관 및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평가하며 5장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북한 선교 현황에 대하여 논하고 6장은 통일 이후의 북한 선교 전략, 7장은 북한 선교 전략지로서의 백령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백령도 진촌 교회의 선교 비전을 기술하며 8장에서는 제안과 결론을 내림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성경에 나타난 하나 됨 신학

우리는 인류의 하나 됨을 믿는다. 이 하나 됨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로 불러모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하나 됨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의롭다 함을 입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물(Creatio Dei)이다. 본 장에서는 하나 됨 대한 성경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제 1 절 하나 됨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성경에 의하면 본래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거대한 한 가족이다(행 17:26).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롬 5:12) 아담의 범죄로 공동체성이 파괴되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와 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창 3:8)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보여주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직책을 떠넘긴 것(창 3:12)은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같이 파괴된 공동체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나)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엡 1:10) 타락한 인간들에게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성별과 연합과 영향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의 앞을 떠나 나간” 인간의 무리(창 4:16)와 “여호와와 의 이름을 부른” 인간의 무리를 분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후자 그룹 중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해 내시고 그 후손을 선민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들로 성별되고 연합되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의 영향을 받게 하셨다(창 12:2-3).

이같이 구약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선택하사 성별과 연합을 통해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엡 2:13-16)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수 민족만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보편적으로 종말적인 메시아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창조하시고 이 공동체의 성별과 연합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를 확장시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완성하실 것이다(계 21:3).¹⁾

1. 구약의 선민 공동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셔서 성별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되(출 20:2)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다(레 19:2)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어떠한 우상 숭배도 엄금하시면서(출 20:4-6) 특별히 그 공동체가 들어가서 거주할 가나안의 우상들을 절대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그 신들을 허용하면 그 신들이 선민 공동체에게 “열 구리에 가시” 혹은 “올무”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다(삿 2:3). 하나님은 이렇게 선민 공동체가 여호와 일편단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면서 선민 공동체의 성별 기준으로 율법을 주셔서 종교적 도덕적 거룩을 유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선민 공동체의 거룩이 파괴될 경우 그 회복을 위하여 피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레위기).

하나님은 이같이 선민 공동체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에 따른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선민 공동체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염되어, 주변 민족들과 같이 불결한 공동체가 되기도 했다(사사기). 불결한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정체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존재 가치를 잃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성결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외적의

1) M.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197-198.

채찍으로 징계하셨다. 성결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뿐 아니라, 지파간의 갈등과 끝내는 내란마저 초래하여(레 19-21) ‘공동체’를 깨뜨리고 복의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에게 성별을 요구하실 뿐 더러 연합도 요구하셨다. 선민 ‘공동체’ 자체가 연합된 선민 그룹이고 또 그래야 했다. 선민 공동체의 연합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나 하나만’ 건너면 남들이야 수장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너도록 물이 갈라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신(출 14장; 수 3-4장)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선민 공동체는 광야에 머물 때나 행진할 때 ‘나 혼자만’ 편하게 마음대로 머물거나 행진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머물렀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했다(민 2, 3, 10장). 광야 식탁의 내용에 있어서도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었다. 선민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같이 골고루 즐기는 광야의 초대형 밥상 공동체였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모두 함께 싸우는 총력전이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선민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지고 패전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수 7장).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경배의 공동체였고 나눔의 공동체였다. 성막과 이후에는 성전에 상징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제사 공동체였다. 선민 공동체는 또한 나눔의 공동체였다. 십일조를 바쳐서 생활 기반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었고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제정하셔서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종으로 팔린 자들을 해방시키도록 하시고 잃었던 각자의 땅을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셨다(레 25장). 하나님은 독점하고 독식하는 것을 금하셨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삿 5:8).

그러나 선민 공동체는 성별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자체 분열을 초래하고 마침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나눔의 연합을 지키지 않음으로 (안식년의 불이행, 렘 34:8-22)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별과 연합을 통하여 주변에 복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다. 성별한 연합, 즉 거룩한 공동체로서 유지되기만 해도 그 자체가 ‘제사장 나라’(출 19:6), 만방의 제사장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시 67:2). 이렇게 성별과 연합을 통한 복의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이것이 구약의 선민 공동체였다.²⁾

2. 신약의 종말론 메시아 공동체

신약의 종말론 메시아 공동체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만민에게 미치는 공동체이다(창 22:18; 갈 3:16). 한 민족 이스라엘 중심이던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만민에게로 확대되었다.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로 예표되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사 메시아 공동체를 창조하셨다(엡 2:13).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메시아 공동체에 진정한 교제(코이노니아, 고후 13:13)의 불길을 붙이심으로써 성별과 연합과 영향의 공동체답게 움직이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구약 시대에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이므로, 신약의 메시아 공동체는 종말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목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막 10:45) 창조하신 메시아 공동체는 성별된 공동체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피로 구원해 내심으로써 형성된 공동체이므로(마 1:21), 메시아 공동체는 그의 피로 씻김을 받은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된 공동체는 계속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성별될 필요가 있다(요 17:16-17; 롬 12:1-2). 그리고 이런 성결성이 세상의 죄에 오염될 경우,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히 9:14; 요일 1:9).

메시아 공동체가 성별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계 19:7; 21:2), 성령의 전(고전 6:19), 혹은 거룩한 나라(벧전 2:9) 등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메시아 공동체는 성별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연합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이다(엡 2:13-19). 메시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 구성원들은 그 한 몸의 지체들이다(고전 12:12-27).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

2) 권성수, 신앙인의 현실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153-157.

한 후(1절),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하였다(3절). 그는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열거함으로써 이것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4-6절).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들, 새로운 이스라엘들과 같이 복수의 형태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오직 하나이나 단지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에 한해서 복수를 사용한다. 교회는 그 본질상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ekklesia)는 단수로만 사용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과 아버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16절)라고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아래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경험은 날로 성숙해 가게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유사한 호소를 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촉구한다. 이같은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겸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다(3-4절).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모델은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행위이다(5-8절). 따라서 그의 모범을 따를 때, 신자들 상호간에 진정한 하나 됨이 이루어질 것이다.³⁾

이와 같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여럿인 것처럼 메시아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지체들이 여럿이다. 약한 지체들도 다 긴요하고 존귀하며 각 지체는 고통도 함께 영광도 함께 누리면서 서로 돌아보도록 되어 있다. 고리들로 연결된 체인은 그 가장 약한 고리 이상 강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지체들 중 가장 미천해 보이고 약한 지체가 몸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지체가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몸

3) M. J. Erickson, 교회론, 195-197.

으로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되어 있다(엡 4:1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연합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고, 이런 연합을 유지하도록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다(요 17:11, 21).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구절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0-23).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장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이심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나 됨을 신자들 상호간의 하나 됨의 모델로서 제시하신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자와 신자 및 신자와 하나님의 하나 됨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할 것이다.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행 2:1-4),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과 성령의 은사로 메시아 공동체를 사랑의 은사 공동체로 응집시키셨고 지금도 시키시고 계시다. 성령께서 공동체의 각 구성원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하심으로써(롬 8:15; 빌 3:3), 경배 공동체로 활성화시킨다(롬 12:1-2). 성령께서는 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서로 갚은 것을 나누게 하심으로써 나눔의 공동체로 활력을 불어넣으신다(행 2:43-47; 4:32-35).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을 통용하는 나눔의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실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메시아 공동체의 연합은 또한 섬김의 연합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마 20:28).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랑을 본으로 보이셨고, 제자들도 그 본을 따르게 하셨다(요 13:1-35).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

4) M. J. Erickson, 교회론, 195-196.

했다(막 10:45). 이런 메시아의 피로 창조되어 그를 따르는 메시아 공동체는 당연히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메시아 공동체는 경배, 나눔, 섬김으로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이다.⁵⁾

제 2 절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신학적 근거

성경의 이같은 구체적인 가르침에 부가하여, 신자들 사이의 통일성에 대한 논거로서 신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단일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성은 바로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 같은 구절들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구된다(5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진실로 하나이다. 창세기 1장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⁶⁾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통일성은 두 가지 제도, 즉 성전과 율법에서 상징화되고 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다른 모든 예배 장소들과 예배 형태들이 배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을 그들의 예배의 중심점으로 삼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소속 지파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⁷⁾

5) 권성수, 신앙인의 현실, 157-162.

6) Stig Hanson,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Colossians and Ephesians (Lexington.: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1963), 107-108.

7) Geoffrey W. Bromiley, The Unity and Disunity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58), 9-10.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통일성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한 족속이요, 한 나라를 구성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벧전 2:9). 그러나 신약 성경은 족속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통일성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정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여기서 바울은 통일성에 관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성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0-22절).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말하고 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⁸⁾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개념도 신자들 사이의 통일성을 논증해 준다. 결혼 제도는 처음부터 일부일처제로 만들어졌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일부일처제 이외의 다른 방식은 결코 제안되고 있지 않다. 예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결혼의 영속성에 대해 논증하셨으며(마 19:5) 바울도 그것을 인용하여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였다(엡 5:31).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것은 오직 한 몸이어야지 결코 여러 몸이어서는 안 된다.⁹⁾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통일성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논거이다. 바울은 교회 내의 지체들과 기능들의 다양성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신자들의 통일성에 대한 바울의 가장 심오한 신학적 논증은 아마도 에베소와 골

8) Geoffrey W. Bromley, The Unity and Disunity of the Church, 10-11.

9) Ibid., 11.

로새서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23절을 구원론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15-16절) 자신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17절)고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몸 된 교회의 머리아심을 의미한다(18절). 바울의 논증은 19-20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목적은 만물을 자신과 화목시키는 것이다. 교회를 포함하여 만물은 그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견해를 3장 14-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¹⁰⁾

교회의 통일성은 에베소서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주제이다. 1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 로 주신 분”(엡 1:22-23)으로 묘사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2:14-16). 2장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결합되었다는 구절(20-22절)로 끝맺고 있다. 아울러 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친히 지으시는 건물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2:10, 21-22).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으시는 활동 방법은 전도와 선교이며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이다.¹¹⁾ 우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의 분열된 모습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가 ‘중간에 막힌 담’으로

10) Stig Hanson, Unity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Colossians and Ephesians, 109-111.

11)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62.

인해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다(엡 2:11-14).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같은 신앙고백은 믿음으로 교회의 하나 됨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노력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엡 4:1-3).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한다. 성경의 다른 번역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하나 됨과 평안의 때는 피로 확실하게 묶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엡 4:3)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 됨은 외적이거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통일성보다는 내적 일치를 의미한다(참조. 빌 2:1-11; 고전 1:12-13).¹²⁾ 4장에서 바울은 ‘왜 교회가 하나로서 생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열거하고 있다(4:4-6). 스티그 헨슨(Stig Hanson)은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이 몸이 하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¹³⁾ 바울은 4장 11-14절에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나눠주신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5절). 이것은 한 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통일성을 보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의 의미는 개인들이나 교단을 마구잡이로 모아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하는 몸 된 교회란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하며 교회는 지체들만의 모임 그 이상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특별한 씨족이나 종족과도 같다. 개개인들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전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14-27에서 밝힌 대로 따로 떨어진 손이나 눈, 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쓸 곳이 없다. 각 지체들은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부분들로 만드신 지체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들의 주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 수 없다.¹⁴⁾

12)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63.

13) Ibid., 152.

14) Ibid., 64-65.

제 3 절 평화 신학으로서의 통일 신학

1. 성경적 평화 이념

가. 구약에서의 평화 - 샬롬 사상

“평화를 찾고 평화를 추구하라”(시 34:14)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은 평화가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이며 평화를 떠나서 인간 사회의 질서, 정의, 그리고 안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평화’를 의미하는 구약 성경의 개념은 ‘샬롬’이다. 이 단어는 한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 다기보다는 인간 공동체의 화목, 단결 그리고 안전을 강조한다. ‘샬롬’은 근본적으로 ‘온전함’, ‘완전함’을 말한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샬롬이 신체적 상태와 관련하여 쓰여질 때는 몸이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물질적 상태에 관련하여 쓰여질 때는 번성, 풍요, 풍년을 의미한다. 또한 샬롬이 인간 관계와 관련하여 쓰여질 때는 관계의 온전함 즉, 우의의 화평한 관계를 의미한다. 샬롬이 공동체와 관련하여 쓰여질 때는 공동체의 온전성과 화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이나 분쟁이 아니다. 전쟁이란 샬롬이 깨어졌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외부적인 징후에 불과하다. 샬롬의 반대말은 완전함의 파괴요, 조화와 화합의 붕괴이다. 샬롬은 정의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샬롬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화평한 삶을 이루는 상태이다. 샬롬은 소극적으로 대적의 부재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샬롬은 이러한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향유하는 것이다. 샬롬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향유하고 그 자신과 바른 관계의 삶을 향유하고 그의 동료와의 삶을 온전히 조화롭게 향유하며 그의 자연 환경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향유하는 것이다.¹⁵⁾

첫째,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샬롬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를 언급하고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이심이라”(사 26:3-4).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15)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7), 70.

다. 이러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사 26:7). 샬롬은 신앙적 공동체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기반이다.

둘째, 샬롬은 다른 인간과의 조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나타낸다. 공동체의 화목과 조화란 공동체 속에 정의가 지배할 때 이루어진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관련하여 샬롬의 부재가 정의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총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사 1:21).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속을 정의의 회복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다. “그 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6-17).

샬롬은 윤리적 공동체이다. 정의는 샬롬에 불가결하다. 만일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박탈당하여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의 샬롬은 깨어지게 된다. 샬롬은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의 상황에서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 샬롬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몫을 누리게 될 때 보장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요, 샬롬의 공동체이다.

셋째, 샬롬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이사야는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은 자연과의 샬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11:6-9). 자연 속에 샬롬이 지배하게 될 때 자연 세계에서 약육강식과 자연에 의한 인간의 해함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다. 샬롬은 책임적인 공동체이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하여 이웃 인간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며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책임이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연이 스스로 지탱하도록 자연을 관리하는 것이다.

나. 신약에서의 평화

신약에서 사용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이 말은 ‘에이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열된 것을 일치시킨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열을 끝내고 단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는 ‘화해’, ‘단합’, ‘미움과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전쟁의 끝남’, ‘분열의 끝남’ 등을 의미한다.

다.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평화

이러한 샬롬이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원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 교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창조 본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시켰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창 3:8).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과 소외되게 되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 3:7).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양심의 자각이요, 자기와의 갈등과 소외를 말한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했던 샬롬은 깨어지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창 3:16). 더 나아가 인간 사이의 조화와 화합의 관계는 증오와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갈등과 증오와 살인 사건이 이러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 더 나가 인간의 원죄 때문에 자연계의 조화가 깨어지고 저주를 받기에 이른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 3:17).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도 깨어지기에 이른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 3:17-18). 자연은 이제 인간의 평화스러운 삶의 거쳐라기보다는 인간의 노동과 땀에 재해를 가져다주는 고되고 위험스러운 거쳐가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조화로운 경작자가 아니라 자연의 착취자요

약탈자가 되어 버린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창조 세계의 샬롬은 깨어지고 말았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 근원적 소외와 타락으로부터 창조 세계의 각종 소외는 야기된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 인간과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창조 세계의 본래적인 조화와 온전성인 샬롬은 깨어지고 혼돈과 부조화와 대립과 갈등이 창조 세계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창조 세계의 깨뜨려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었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샬롬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롬 5: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김세윤에 의하면 바울은 신학 용어 ‘katallavsein katallagh’(화목케 하다/화목)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이 화목의 의미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편의 화해(요청)가 아니라 오히려 패역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요구)라고, 종교사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할 때 이 ‘화평’의 일차적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의 객관적인 상태이며 이같은 객관적 화평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주관적 감정의 평화로운 상태는 ‘화평’의 이차적 의미로 포함된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화목케 하심으로 비롯된다.¹⁶⁾

더 나가 그리스도는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샬롬을 회복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화목케 됨”의 범주에 우주적인 세력들을 합한 만물이 포함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소격되고 원수된 만물을 그와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바

16)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도서 출판 엠마오, 2000), 516-524.

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신 우리의 화평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13-14). 에베소서 2장 17-18절에 보면 이러한 화목케 되는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또한 그들 모두(유대인과 이방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화평’ 이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둘러싼 벽, 즉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별시키고 보호하는 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쌓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하여 지고,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적대감의 벽’은 무너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무리의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 이 모두를 그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참조. 고후 5:17; 갈 3:28), 또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57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메시아가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에게 이 ‘화평(평안)’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¹⁷⁾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샬롬의 회복은 우주적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소격과 부조화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롬 8:21).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의 평화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주심으로써 원수 되었던 것을 멸하시고 자기 몸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로 불리는 아우구스도의 평화(Pax Augusta)와 다르다. 로마의 평화는 적대 세력을 힘으로 응징해서 물리적으로 굴종시키는 힘의 평화이다. 힘의 평화는 상호간에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 불안해하는 심리가

17)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516-524.

지배하나 사랑의 평화는 상호간에 신뢰하며 서로에 대해 안심을 허용하는 심리가 지배한다.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평화를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통일 신학의 평화 이념은 힘의 평화가 아닌 사랑의 평화에 기초해야 한다.

2. 정의로운 평화

사랑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이다. 첫째, 사랑의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사랑의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평화였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새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5-26).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사랑의 평화는 인간의 불의와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이요 제거를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불의와 죄의 대속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정의는 창조적이고 의롭게 하며 권리를 창출하는 정의이다. 하나님은 권리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는 의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시 31:20)라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시 103:6)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인 평화인 샬롬을 수립하신다.

둘째, 사랑의 평화는 이웃과의 정의로운 평화를 수립한다.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그에 대한 진정한 관계라고 말씀하신다(눅 10:30-37). 그리스도는 불의한 청지

기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교훈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주인의 일을 잘못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빛진 자들에게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의 칭찬을 받은 교훈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힘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정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눅 16:1-13).

평화는 사회적인 정의가 지배하는 곳에 정착된다. 불의와 폭력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 안정과 질서가 강요되는 곳에도 평화는 없다. “평화가 정의를 가져오지 않고 정의가 평화를 가져온다. 불의는 항상 불평등을 만들고 평등과 정의를 파괴한다. 불의한 체제는 항상 불의와 폭력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죽음만이 있으며 생명이 없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평화가 없다. 이러한 성경적 정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창조적 정의이다. 창조적 정의는 정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자를 끌어 올려 정의를 부과하는 복음적 정의이다. 이것은 분배적 정의를 넘어서는 분배적 정의란 각자가 가기의 몫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식은 모든 자에 대한 법적 평등과 인간의 실재적 차이성(마르크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기능과 재화에 사실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삶과 식물과 노동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반해서 창조적 정의는 불우한 자의 지위를 끌어올려서 그에게 해당하는 몫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기존의 분배적 비례 체제를 창조하는 변혁적 정의이다.¹⁸⁾

틸리히는 구약 성경의 세다카(sedakah)라는 개념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세다카는 창조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인격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여건을 변화시킨다. 세다카는 그것이 부여되는 사람을 보다 높은 상태로 끌어올린다. 그것은 그에게 해당되는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정의를 가리켜 변혁적 정의(transforming justice)라고 말한다.

둘째, 인격적 차원이다. 정의의 인격적 차원을 통하여 인간 공동체는 이루어진다. 인격적 차원은 상호간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 인권에 대한 상호간의

18) 고범서, 기독교 정의관 개인 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78), 56.

19) Paul Tillich, My Search for Absolutes, ed., Ruth Nanda Anstl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9), 107.

인정과 상호간의 수용은 인간다운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이러한 인격적 차원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용납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롬 15:7)고 한 바울의 권면과 일치한다. 정의의 이러한 인격적 차원은 민주사회의 현대적 계약 개념인 언약과 헌법에 깔려 있다.²⁰⁾

셋째, 긍휼의 정의이다. 긍휼의 정의는 권리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의이다.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의다. 시편 기자는 약한 자의 권익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시 146:9). 인간적 불의와 폭력이 날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가 정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 받는 자들이 권리를 찾으려 불의한 자들이 불의에서 정의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²¹⁾ 정의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수립한다. 정의로운 행동과 세계에 두루 미치는 정의 외에 평화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적 법질서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속적인 평화로 나가는 모든 법질서를 위한 법 창조의 원천이다. 다른 자들의 인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권리의 창조와 보장이 모든 지속적인 인간 법질서의 기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살롬은 전쟁이 아닌 상태, 군사적 폭력의 부재, 불안과 억압의 부재들의 평화와 부정적 개념을 넘어선다. 평화의 이 부정적인 개념이 지난 40년 동안 평화를 보존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휴전 상태와 혼동되고 핵장비 및 군비 확충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평화의 부정적 개념은 불충분하다.

평화의 적극적인 개념은 모든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 민주적 갈등 해결과 균형의 상태이다.²²⁾ 기독교 평화 신학은 평화의 이 적극적 개념에 우의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이 적극적 평화 개념 없이는 부정적 평화 개념이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평화는 진보와 퇴보가 교차하는 공동의 길이다. 이 과정에서는 무장과 무력의 감축과 신뢰와 사권의 구축이 중요하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평화란 현재의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세대 사이에서 정의에 대한

20) 김영한, “개혁주의 평화 통일 신학,” 목회와 신학, 84.

21) Ibid.

22) Ibid., 85

책임 의식으로부터 야기된다. 역사 속의 한 세대가 다가오는 세대의 삶을 위해 책임을 질 때 지속적인 평화는 실현된다. 이 책임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남북의 화해 시대에 있어서 남북 관계는 평화의 부정적 개념이 아닌 적극적 개념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체제적 우위로 나가서 동독이 서독을 선망해서 스스로 강요받은 체제를 버리고 서독에 합병한 것처럼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지난 40년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씻고 신뢰와 정의에 기초한 평화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한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교훈한 비폭력 행동과 악을 선으로 대하는 행위를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교류의 전진을 위한 지표로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 속에서 폭력의 지배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에서처럼 폭력과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은 살롬의 윤리를 제창함으로써 폭력과 보응의 사고에 종말을 가하고 의로써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창조적 사랑의 윤리를 제시했다. “창조적 사랑에 기초하는 정의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다.”²³⁾

제 4 절 하나 됨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

하나 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됨의 본질,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의 하나 됨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에릭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통일성에 대한 네 가지 상이한 개념이 존재한다.²⁴⁾ 그 개념들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개념들과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무형 교회(불가견적 교회)를 강조하는 견해로부터 시작하여 유형 교회(가견적 교회)를 강조하는 견해로 옮겨가면서 차례로 다루게 될 것이다.

1. 영적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첫 번째 견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동일한 주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 교회 안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 장차 이 몸은 유형적인 형태로 실제

23) 김영한, “개혁주의 평화 통일 신학,” 86.

24) M. J. Erickson, 교회론, 204-208.

로 결합될 것이다. 한편, 교회의 통일성은 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적의도 없다는 사실에서 존재한다. 모든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을 사랑한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과 실제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유형 교회의 여러 단체들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해도 - 심지어 동일한 지역 내에서조차 - 이 통일성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교회의 통일성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상 회원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교리적 신념의 순수성과 생활의 순결성을 강조한다.²⁵⁾

2. 상호 인정과 교제

두 번째 견해는 단순히 통일성에 관한 이상주의적 개념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성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된다. 각 회중은 다른 회중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합법적인 구성원들로 인정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한 회중으로부터 또 다른 회중으로 기꺼이 옮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을 서로 교류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 성직을 임명받았다 해도 그것을 상호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유사한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중들이, 기회가 되면, 함께 사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협력하여 대규모 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상호 협력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로 국한되는 것이지, 공식적이며 영구적인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⁶⁾

3. 화해적 통일성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 자체를 통합하기도 한다. 그들은 단결하여 교회 협의회 또는 교회 연합회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파간의 협력 단체로서 각자의 정체성은 그대로 보유된다. 이러한 통일성을 교제와 행위를 다같이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통일성은 영적

25). J. Marcellus Kik, Ecumenism and the Evangelica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8), 48-53.

26) James Deforest Murch, Cooperation Without Compromise (Grand Rapids: Eerdmans, 1956), 35.

일 뿐만 아니라 유형적이기 때문이다.

4. 조직적 통일성

마지막으로 교회의 통일성은 실제로 단일 기구를 창설하여 독립된 여러 교파들을 그 안에 복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는 교회의 회원과 성직 임명을 서로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파들이 연합될 때, 지역 회중들이 합병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연합 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로서, 이는 1925년에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고 회중 교회가 연합하여 형성한 단일 교파이다. 또 다른 예는 남인도 교회(the church of south India)이다. 1960년대 초, 교회 연합에 관한 협의회(the Consultation on Church Union: COCU)는 여러 교파들을 하나로 합병하는 계획을 구상하여 그것을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Uniting)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기독교회들 -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 을 하나의 공동 교회로 결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의 목적이 어떤 때는 화해적 통일성에, 또 어떤 때는 조직적 통일성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⁷⁾

27) M. J. Erickson, 교회론, 206.

제 3 장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정부 정책

제 1 절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역사적 고찰

1876년 2월 무력에 의한 한일 통상조약(강화도 조약)의 체결 이후 일제의 한반도 침략은 정치적 경제적인 방면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갔다.²⁸⁾ 그들은 정부 내의 개화파 인사들을 앞세워 내정 간섭에다 때로는 무력으로 억압하고 실제적인 권력 행사를 펼쳐 조선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침략적인 형태는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며 그것이 1905년에 와서 소위 을사 보호조약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공포함으로써 첫 단계의 성공을 가져왔다. 일제는 이어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고종을 폐위시킨 후 1910년에 조선과 일본을 합방함으로써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였다.²⁹⁾

일제는 그 후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 침략을 감행하였고 동남아 제국으로 진격하여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 대외적으로 공포한 대의 명분은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을 불태우며 독일·이태리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1941년 12월 8일 구라파 전쟁에 중립을 선언한 미국을 향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자 사이판 군도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세는 미국 쪽에 유리해졌고 구라파에서 두 동맹국 이태리와 독일의 전황이 불리해져 갔다.

1943년 9월 드디어 이태리가 연합군에 항복하여 종전의 신호가 울렸다. 그해 10

28)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 편찬 위원회, 한민족 독립 운동사, vol. 5 (1989), 22; 기전외, 일본인의 한국관, 이원호 역 (서울: 탐구당, 1981), 15-19, 99-101. 강화도 조약이 전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일본인과 심지어 자유 민권 논자 중에서도 이 조약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였다.

29) 김행식, 한민족의 항쟁 (서울: 복지 문화사, 1996), 59-67.

월 영국, 미국, 소련이 모스크바 외상 회의를 소집하고 종전에 따른 각종 문제를 논의했다. 11월 27일 미·영·중 정상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고 대전 후 일본의 처리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 조항을 넣어 자유 독립 국가로 한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서명한 것이다.³⁰⁾ 1945년 들어서자 전황은 연합군에 더욱 유리해졌고 종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2월 4일 미·영·소 수뇌인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얄타에서 회담을 열고 전쟁 수행과 전후 처리, 국제연합의 창설 등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 이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 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민의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독립이 국제적인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도록 비밀 협정이 체결된 것은 훗날 한반도를 분할할 하나의 빌미가 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큰 비극이었다.³¹⁾

1945년 4월 독일이 항복하자 미·영·소의 정상들은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베를린 시 교회의 포츠담에서 회의를 열고 독일 패배에 따른 유럽 처리 문제를 의제로 삼아 의논했다. 회담의 결과 주축국에 대한 강화조약 작성을 위한 외상 이사회의 설치가 결정되고 독일의 전후 처리에 관하여 당분간 미·영·소·프 4국이 분할 점령하는 것을 의결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본은 8월 6일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져 34만 3000명 중 7만 명이 사망하고 13만 명이 부상을 데다가 이어 8일에 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자 전의를 상실하고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소화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³²⁾ 이로써 6년간의 제2차 세계대전은 종언을 고하고 한민족은 36년간의 일제의 질곡 밑에서 신음하던 것이 그들의 패배로 인하여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종전 후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으로 나누어³³⁾ 이 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이 남에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향후 분단의 씨앗을 배태시켰다.

미소 양국은 포츠담 회의의 결의에 따른 전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국의 외상 회의를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고 7가지를 협정했다. 그 중 첫째가 한국에 관한 문제였다. 양측은 “한국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에

30)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vol. 27 (서울: 동아 출판사, 1983), 191.

31) Ibid., 20:243-244.

32) Ibid., 22:229.

33) 1945년 8월 25일 북위 38도선 분할 점령을 미국서 처음으로 방송하다. 최석채 외 편, 해방 20년: 자료편 (서울: 세문사, 1966), 11.

관하여 협의한다”³⁴⁾고 결의했다. 이 결의 사항이 전파를 타고 들어오자 국내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연일 시민들이 가두로 나가 시위 행렬을 벌였다. 처음에는 좌우파가 한결같이 반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을 업은 좌익 계열이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통일국가가 들어설 것으로 예견하고³⁵⁾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큰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나 남북한에는 소련군과 미군이 각기 군정청을 설치하고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행정 사법을 장악해 갔다. 이것이 한반도가 분단으로 내딛은 전말이었다.

제 2 절 북한 공산당의 분단 고착화와 민족 이질화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진주를 끝낸 소련 제25군은 ‘북조선 주둔 소련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바로 이날, 38도선을 공식적으로 봉쇄하여 공산국가를 세우는 일에 착수했다. 그들은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을 끊고 전화 통신도 끊었으며 사람과 물자의 왕래도 두절시켰다. 그리고 북한에 진주하기 전에 조만식 선생이 세운 우익계의 ‘평안남도 건국 준비 위원회’와 좌익계 현준혁이 조직한 ‘조선 공산당 평안남도 지구 위원회’를 합쳐서 ‘평안남도 인민 정치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우익계와 좌익계에 각각 16명씩 32명으로 했다. 이전 혼합된 소비에트식 인민위원회 조직이 9월 중순까지 이북 전역 도 단위에서는 끝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형 연립의 단계였다.³⁶⁾ 이 무렵, 소련에서 스탈린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소련군 소령 33세의 젊은 김성주가 김일성의 이름을 가지고 ‘조선 인민 혁명군’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왔다. 소련 당국은 김일성을 일본 제국주의를 패퇴시킨 개선 장군으로 부각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10월 8일에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임시 위원회’를 조직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10월 28일에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되었고 이것이 북한의 사실상의 ‘태아적 중앙 정부’였다.³⁷⁾ 따라서 김학준이 북한 50년사에서 “그것은 북조선 주둔 소련령군 사령부가 북한 단독의 정권 수립을 향해

34)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81. 참조.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12권, 118, 119.

35) 김학준, 북한 50년사 (서울: 동아 출판사, 1995), 100.

36) Ibid., 84-85.

37) Ibid., 91.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했다”고 한 것은 당시 이북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포츠담 회담에서 결의한 대로 전후 처리를 위한 외상 이사회가 가동되기 두 달 전에 벌써 소련 주도하에 북한 공산당 정부의 골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까지 지명하고 그를 민중이 친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지도자가 스탈린이 선택하여 보낸 빨치산 출신의 젊은 김일성이었다. 소련 당국은 한편 자기네 위성국이 될 북조선의 정부 조직에 걸림돌이 될 우익 인사들을 폭력과 무력으로 축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산당 인사로 하나 하나씩 대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정세 하에 해방되던 그해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 이사회는 포츠담 정상 회담에서 의결된 주최국의 전후 처리를 위한 일환으로 조선을 향후 일정 기간 신탁통치 하도록 의결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한국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의한다”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소련은 발빠르게 북한에다 이미 자기네 위성국이 될 인민공화국을 세워 놓은 입장이다. 신탁통치 운운은 허울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신탁통치는 단일 정부 하에서 진행될 것인데 이 단일 정부를 조직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해방 원년을 바쁘게 보낸 미소 군정 당국은 이듬해 3월 20일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위한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울 덕수궁에서 미국측 수석 대표 아놀드 소장과 소련측 수석 대표 스티코프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합석한 동위원회 본회는 개회 벽두부터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민주주의적 제 정당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때 참석한 남한의 우익 정당 사회단체는 신탁통치 그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회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산회했다.³⁸⁾ 5월 27일에 열린 2차 회의에도 임시정부에 참여할 세력 문제를 두고 심한 의견 차이 끝에 교착 상태에 빠져 버렸다. 따라서 동위원회는 47년 7월 10일에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무기한 연기된 채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다.³⁹⁾ 소련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11월 3일 북한 단독 정부의 출범을 위해 정부의 골격이 될 도시·

38) 홍승면 외 편, 해방 20년: 기록편 (서울: 세문사, 1965), 77.

39) Ibid.

군 단위의 제1차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했다. 이것은 바로 소련 당국의 계산된 정치 수순이었다. 신탁통치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고 다만 하나의 공산당 위성국을 만들려는 야망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치 정국의 긴 세월 속에 조선 인민공화국의 수상 자리에 오른 소련의 꼭두각시 김일성은 소련의 보호 아래 남한 해방을 무력으로 달성한다는 야욕과 야망을 키우면서 전쟁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많은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확보한 그는 1950년 6월 25일 아무런 대비도 없는 약체 남한을 향해 수백 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쳐내려 갔다. 3년의 전쟁은 밀고 밀리는 가운데 아무런 소득 없이 수백만의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채 끝이 났다.⁴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오히려 한반도를 분단 상태의 냉정 구도를 한층 더 공고히 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념의 갈등은 더욱 깊어 공산당을 천하에 존재해서는 안될 살인 집단으로 규정했다. 학교 교육은 모두 멸공·승공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토 국방에는 북한을 적국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때문에 그들은 뿔이 달린 짐승으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민족으로 남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만큼 민족적 이질화 현상을 가져왔다. 언어도 많이 달라졌다. 생활 습성, 체력, 체질 등에까지 남북간에 심한 격차를 가져왔다. 이처럼 분단의 고착화는 북한 공산당의 만행으로 이룩된 결과였다.

제 3 절 국토 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1. 역대 남한 정권의 통일을 위한 정책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6·25 동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1년 5월 16일 UN에 의한 휴전 협상이 논의되자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통일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제거된 38선을 또 다시 설정시키는 어떠한 휴전도 이를 반대하며 만약 UN군이 휴전 협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를 회복할 때까지 단독적인 행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실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해방 후 공산 정부에 빼앗긴 이북 전역을 말하며 ‘단독적인 행동’이란 UN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국군만으로 무력 통일을 성취시키겠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해 6월 5일 국회는 한국 주권 하

40) 홍승면 외 편, 해방 20년: 기록편, 173-174.

의 남북통일을 결의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9월 20일 이 대통령은 휴전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자기의 의지를 접고 4대 원칙을 내세운 휴전 수락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중공군의 철회. 둘째, 북한군 무장해제. 셋째, UN 감시 하 총선거. 넷째, 휴전 조건 동의 기간, 회담 종결 기간 설정.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괴의 항복을 요구한,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휴전회담을 파기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여기에 미합중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 다음 요지의 5개항을 약속함으로써 휴전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첫째, 한 미 방위 협정의 체결. 둘째, 2억 달러의 차관. 셋째, 만일 아무런 건설적인 성과가 없다면 90일 후에 미국이 정치 회의에서 철수한다는 합의. 넷째, 한국군 증강의 원조. 다섯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한 미간의 고위층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 등이었다.

이처럼 우방 미국의 든든한 방위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계속 한국을 분단국가로서 남게 하는 어떠한 전쟁의 종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모든 국군을 UN군사령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휴전을 저지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은 체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 국회는 통일 없는 휴전을 반대하였고 학원가에서는 북진 통일 학도 궤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해 11월 25일 휴전 후 최초의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을 발표했는데, 첫째, 북한만의 단독 선거로 국회의 잔여 의석을 채우는 것이 원칙. 둘째, 그러나 북한 주민이 희망한다면 전 한국 총선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선심성 양보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자유당 정권의 통일 방안은 사실 알고 보면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고 진심은 북진 통일⁴¹⁾에 있었다. 당시 관공서나 교육기관의 건물에 붙은 멸공 통일이란 표어는 공공연한 국시처럼 되어 있어 그것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 만일 평화 통일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범죄자로 형사 입건이 되었는데 평화 용어 자체가 금기 사항이었다. 1953년 5월 16일 북진 통일을 배격하고 평화 통일론을 제시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잡아들여 훗날 사형을 집행시킨

41)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1), 79.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통일론이 강력한 북진 무력 통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 장면 내각은 자유당의 선거 부정으로 무너진 후에 들어선 관계로 민주 성향을 띤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간 것이 특징이었다. 이 정권의 통일 정책은 한 마디로 'UN 감시 하의 남북통일'이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다. 그 방안은 첫째, 국토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방침은 UN 감시 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성취한다. 둘째, 현재 외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교 자문 위원회 내에 통일 분과 위원회를 두어 통일 문제를 초당파적으로 연구 심의하도록 이미 결정했으며 그외에 '통일 문제 연구소' 설립도 성안 중에 있다.

이상에 기술한 민주당의 통일 방안은 북한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남북협상의 용의가 있음을 제의해 오자 정일형 외무는 통일 기본 방침은 남북 자유 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이라고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통일 방안은 자유당의 북진 통일에서 많이 후퇴하여 남북 자유 선거에 의한 통일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공화당 혁명정부의 통일 정책은 민주당 정부의 것을 전수하였지만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음이 엿보인다.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군장성들이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혁명 공약에 통일 정책을 이렇게 언급했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혁명정부는 당시 남북 교류 주장자들을 일제히 검거하여 반공 태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해 6월 24일 김홍일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하여 국토 통일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우리는 무력에 의한 국토 통일을 원치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UN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안을 강조한다." 여기에 UN이 한국 문제에 관해 활동할 그 권능과 권위를 존중한다고 언명한 것이다. 공화당 정부의 통일 방안은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설 때 통일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 실천의 일환으로 착수한 것이 경제 5개년 계획이었다. 이것은 종전의 멸공이나 반공이 아닌 경제 우위의 '승공 통일'로도 평가된다. 2차 경제 계획 5개년을 성공리에 마친 1970년에 들어와서는 유신

체제로 강력한 정부를 갖춘 입장에서 공화당 정부는 북한을 향해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발자국 통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2. 최초의 평화 통일을 위한 승공 정책과 국민의 각오

1969년 3월 1일 혁명정부는 최초로 국토통일원을 발족시켜 통일에 관한 강한 실천 의지를 앞세움으로써 온 국민과 이산가족들의 염원에 큰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듬해 2월 20일 신태환 국토 통일원 장관은 변천하는 국제 정세 아래서 한국의 통일 정책은 UN 감시 하의 총선 방안에만 고착되어 있을 수 없다는 종래의 방안을 뒤엎은 발언을 하여 정부의 통일 정책에 신축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그후 신 장관은 국회 증언에서 “정부는 북한에 주장하는 남북협상, 남북 교류, 연방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하여 통일 정책에 상당한 접근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남북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은 70년대 들어서면서 미소간에 평화공존이 모색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⁴²⁾ 그 해 8·15 광복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발빠른 행보를 내딛으며 경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남한 정부가 내걸은 무력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 통일로 가겠다는 구상을 선언하여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참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남과 북의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였다.

1971년 새해가 들어서자 정부는 가일층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여 8·15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점차 제거해 나아가기 위해 국민을 향해 다음 다섯 가지 통일 자세를 견지하도록 호소했다. 첫째, 통일 공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둘째, 통일 세력의 생활화를 촉진하며 셋째, 분단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넷째, 국민 여론을 선도하며 다섯째, 통일 자료의 집대성과 통일 정책의 연구 발전을 통해 통일 기반을 착실히 굳혀 나아간다. 그리고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국론 통일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실천에 옮긴다. 첫째, ‘통일 기원의 날’ 제정 둘째, 백두산의 천지 사진 부착 운동 셋째, 통일 저해 요소의 발굴 전시 넷째, 계몽 책자 발간 사업 등을

42) 최정, 통일로 가는 길 (서울: 언론인 클럽, 2000), 406.

추진하여 범국민적 통일 촉진 활동을 위해 통일 촉진회를 설치하여 통일 관계 단체를 종합할 방침이며 지방에도 통일 연구 기관의 설치를 권장한다.⁴³⁾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허담 북한 회상은 최고 인민 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평화 통일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일부 조건은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몇 가지 제안은 상당히 앞선 고무적인 것으로 수용이 되었다. 이러한 북의 반응에 대하여 정부는 최두선 대한 적십자 총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첫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의하고 둘째, 10일 안에 예비 회담을 개최하자며 성명을 발표하자 8월 14일 북측에서 즉각적으로 동 제안을 수락했다.

1971년 8월 20일 처음으로 남북 적십자 제1차 파견원 접촉 문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한 파견원의 접촉이 5차까지 가자 드디어 예비 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해 9월 20일 최초로 남북 적십자 제1차 예비 회담을 열고 한국 적십자는 7가지 주장을 제의하고 북한 적십자는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합의된 조건하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은 20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많은 것을 합의하여 남북의 의견차를 좁혔다. 마지막 절충을 위해 이후락 중앙 정부 부장이 1972년 5월 2일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 수상을 만났으며 29일에는 박성철 북한 제2 부수상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이로 인해 7·4 남북 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선언문 내용의 골자는 대충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⁴⁴⁾

7·4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5일 문공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공보관 회의에서 첫째, 종래 북괴로 부르던 것은 '북한'으로 호칭할 것. 둘째, 김일성과 그 체제에 대한 중상 비방을 삼갈 것 그리고 검찰 역시 7·4 성명 범위 안에서의 발언 목적의식이 없으면 규제 없기고 방침을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본 회담을 위한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은 8월 11일 2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43) 최정, 통일로 가는 길, 644.

44) Ibid., 648.

로 끝내고 본 회담 대표단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서울 평양간 회담용 전화를 20선이나 가설했다. 8월 29일 제1차 본 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73년 7월 10일까지 7차에 걸쳐 본 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회담에 들어갔다.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조롭게 나아가던 회담들이 1978년 3월 20일에 예정된 팀스피리트 '78 실시를 이유로 무기 연기한 것을 방송을 통하여 한국에 통보되었다.

그해 6월 29일 박 대통령이 제안한 민간 경제 협력 기구 구성 제의에 북한측은 다음의 조건들이 수락되어야 응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첫째, 6-23 선언 취소 둘째, 미군 철수 셋째, 반공 정책 중지 넷째, 민주 인사 석방 다섯째, 군사 훈련 중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 중단된 남북간의 회담이 재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발트하임 UN 사무총장이 서울과 평양을 차례로 방문하여 중재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발하여 남한은 불안 정국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이듬해 다시 남북 조정위가 열리고 남북 총리 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가 10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1년 9월 1일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계기로 남부 회담은 또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광주 5-18 민주 항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김대중 씨를 군재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에 처하였고 811명의 정치인들을 활동 규제 대상으로 발표하여 정국이 경색되는 등 사회 전반이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여기에 또한 1983년 9월 1일에 소련 전투기에 의한 격추 사건이 일어나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어 10월에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미얀마 아웅산의 폭탄 폭발 사건은 17명이 죽고 14명이 부상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 이때 국내에서는 북괴에 대한 규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남북 회담은 긴 동면으로 들어갔다. 1984년에 들어와 정치 문제가 아닌 스포츠 교류에 대한 남북 회담이 열리면서 7-4 선언의 정신이 아직 상호간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해 큰 홍수가 남한 일대에 엄습하여 수재로 인한 이재민이 많이 생겨났다. 북한은 이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5만 섬,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14

총 759상자를 보내와 남한 동포들의 큰 관심을 일으켰다. 이를 기해 남북 사이에 다시 화해의 분위기가 되살아나 남북 적십자 회의와 남북 경제 회담이 열려 그 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65가족 92명의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 151명의 예술 공연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있는 후 이 방문을 계속하기 위한 회담이 계속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대북 교류를 위한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교류의 물꼬를 텄다. 1986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정치 회담 개최를 시사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해에 열리는 팀 스피리트 군사 훈련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 여기에 88올림픽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그 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남북 대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나아갔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 대화가 이번에는 다각적으로 열렸다. 우선 당면한 올림픽 공동 참가 문제, 남북학생 회담 개최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었으며 특별히 7·7 노 대통령 특별 선언은 그 내용이 통일에 적극적인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 거절되었다.

남북간의 줄다리기식 제안들이 상호간의 불신과 이해 관계에 얽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정국은 오히려 경색되어가. 평화 통일의 길은 멀어만 가는 인상을 주었다 뚝 떨어진 것 같은 북한의 통로가 미궁에 빠지는가 하면 다시 흰히 보이는 가운데 대망의 24회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갈채 속에 끝나고 1989년 새해를 맞았다. 1989년 새해를 맞았다. 그해 3월 25일 정부와 온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문익환과 김일성이 포옹하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온 것이다. 정부의 허락 없이 잠입한 이른바 불법 방북이었다. 당시 국내 정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물론 한국이 4위를 얻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게다가 10월 4일자로 출범한 지 몇 달 안된 노태우 정부가 북한의 호응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대북 관련 개방 조치를 취하여⁴⁵⁾ 국내 재야와 학생층의 환영을 받고 있던 무렵이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나⁴⁶⁾ 교계의 눈초

45) 노태우 대통령의 개방 조치 ① 해외 동포들의 남북한 자유 왕래 허용 ② 대북 비난 방송 중지 ③ 남·월북 작가의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④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신청 접수 ⑤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⑥ 대북한 경제 개방 ⑦ 남·월북 작가의 음악 미술 작품 규제 해제 ⑧ 각급 학교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개편 ⑨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및 장치 구비
참조. 양영식, 통일 정책론, 235-247.

46) 양호민, “시론,” 조선일보, 1989년 4월 4일자. 참조. 조선일보 7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리는 파가웠고 비판의 톤이 높았으며⁴⁷⁾ 정계는 찬반 중립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었다. 문 목사 본인의 의사는 북쪽 사람들이 통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방북 이유를 들었다. 이 일로 인해 김일성 수상으로부터 1995년을 희년의 해로 동의를 얻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 내는 데 성공했다. 문 목사의 방북 계기로 그해 유원호, 정경모, 서경원, 문 신부, 임수경 등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비밀 방북하는 일로 남북 화해의 길을 터준 성과를 얻어낸 셈이었다.

3.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정상회담의 성공

대한민국 정부가 UN의 결의로 수립된 이후 52년이 지난 가운데 현 대통령까지 합쳐 일곱 명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각기 소속 정당의 대북 정책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그 의지를 나타내었다. 초기 이승만 정부는 6·25 동란을 겪은 입장이라 북진 통일을 주로 내세웠다. 다음 4·19데모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선거 통일론을 내세움과 동시에 자유당의 정책이었던 북한 불승인과 불교류, 불협상론을 계승하였고 그것이 혁명정부에 와서도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선 종래의 통일 정책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1972년 7월 4일 소위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 통일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1988년 노태우 정부에 와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 연합을 구성 민족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를 거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나 내용 면에 들어가 보면 ‘북한 붕괴 박두 = 흡수 통일 박두론’이었다. 그러면 현 집권당인 국민당의 김대중 정부는 어떤 통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가? 한 마디로 대북 포용 정책이다. 흔히 그것을 햇볕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국민의 정부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임자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부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 지상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가 재야와 학생층으로부터 반통일 세력이라고

1990), 2060.

47) 한국 기독교 신도 공동선언 실천 운동 본부, 한국 교계의 여론: 자료집 (1989), 22-37.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정서적 차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관점을 대표하면서 통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해 온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술상 통일 지상주의’⁴⁸⁾였다.

여기 김대중 정부는 두 가지 압력과 관점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야학생들의 공격, 둘째, 흡수 통일의 염원이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통일 정책이라고 불리던 명칭을 대북 정책으로 바꾸었으며 통일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남북 관계 정세의 인식이 매우 신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통일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화해 협력 단계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토대로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북한 당국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⁴⁹⁾하고 또한 적극적인(상당 부분 원조성)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독의 독일 정책 모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전략의 실천 방안 또는 구체화로써 대북 포용 정책은 대북 3원칙과 6개의 정책 추진 방향, 한반도 냉정 구조 해체 전략, 사실상의 통일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북 3원칙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다. 첫째,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한을 헤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남북이 화해,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대북 정책 추진 6개 방향은 3월 26일에 통일부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첫째,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 추진, 둘째 정경 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셋째,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넷째,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적용, 다섯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여섯째,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⁵¹⁾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내 정경 분리에 의한 경협 추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민간 활동의 장려를 통한 보다 많은 접촉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⁵²⁾

48) 황병덕 외, 신 동방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 (서울: 두리, 2000), 192.

49) 김대중 대통령의 1999년 8·15 경축사의 한 구절.

50) 황병덕, 신 동방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 193.

51) 조선일보, 1998년 3월 26일자.

52) 황병덕, 신 동방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 92.

1988년 4월 30일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대북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 (1998. 11~1999. 11말) 총 14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
- 남북 교역이 1999년 9월 현재 2억5천796만 달러, 작년에 비해 78퍼센트 신장세
-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및 사업자 승인 건수가 크게 신장-총 42건 중 15건
- 사회 문화 협력자 승인 총 17건 중 98년과 99년 각각 7건씩
- 방북 인원 추이 : 90년~97년 총 2,400명이 방북 했는데 99년에 11월 현재 5,192명⁵³⁾

정부는 2000년에 쌀 6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하여 식량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사회 역시 1995년 이후 지난 4년 간 14억 2,300만 달러의 식량을 북한에 원조했고 미국은 1999년 식량 도입량(100만 톤)의 60퍼센트 이상 유류 도입량(100만 톤)의 50퍼센트를 지원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외 의존이 심화될수록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남북간에도 의도적 긴장을 조성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남한 당국간 대화 요구도 무시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최초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평양에서 열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지난 여러 정권들이 시도하다가 그친 이 영광을 김 대통령이 차지한 것은 그의 끈질긴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된다. 이 회담 결과 경의선 복구, 남북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개성 지역 공동 조성 등 큼직한 현안들이 약속되어 현재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 통일로 가는 길 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다.

53) 이상 자료는 통일부의 '국민의 정부 2년, 대북 정책성과 및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제 4 장

한국 기독교의 통일 정책

제 1 절 한국 기독교의 통일관과 특징

1.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통일관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정계나 경제계 그리고 문화계나 종교계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 문제를 놓고 찬반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당면한 통일 문제에 있어 기독교 안에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목소리가 다르다. 그것은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일로써 이 두 견해를 합친다면 가장 완벽한 통일론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일찍 70년대부터 분단의 한계에서 벗어난 갖가지 인권적 제한과 비민주적 제도의 극복을 위해 눈을 뜬 진보 측의 투쟁은 혁명정부의 유신 체제하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것은 보수 측이 유신 정권을 비호하고 나설 때부터 반대 입장에서 줄기찬 예언자적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 내용 면에 가서 일부가 과격하고 비성경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교회 본연의 자세를 찾은 일로 높이 평가된다. 그렇다면 국토 분단의 통일관이 서로 상이할 것이란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최훈은 한국 교회 통일 정책 총서 1권의 격려사에서 보수측을 대변할 만한 통일관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기독교 통일관의 특색은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이며 둘째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 화해와 일치에 바탕을 둔 통일 정책이며, 셋째 단순한 남북한 국민의 연합보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통일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⁵⁴⁾

이상의 내용을 압축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통일관으로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상주의적인 통일관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첫째는 믿음의 자세요 둘째는 사랑의 실천이요 셋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규범에 갇히어 그 성취가 요원한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이 아닐 수 없다.

50개 교단이 가입된 한국 기독교 교총 연합회는 보수 교단들의 협의 기구로서 출발 시기가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던 1989년에 출범한 탓인지 안전을 바라는 보수 기질답게 험악한 통일의 길을 대처하는 태도가 너무나 안이하고 원시적이다. 다급한 한반도의 통일이 50년을 넘은 이 마당에 와서도 국토의 통일이나 민족의 통일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선교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비록 성경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에 맞는 입장이지만 일부 비판가의 눈에는 이상론에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의 통일관

한국 교회 진보 신학의 대변자요 5개 교단이 가입한 교회 협의회(이하 NCCK)의 통일론은 어떤 것일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통일 위원회 위원장 김상근은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서문에서 NCCK의 통일관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는) 민족의 화해가 평화 통일을 하나님의 명령이며 선교적 사명이라고 믿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온 우리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논의조차 완전 봉쇄되었던 80년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에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민족 분단에 대한 죄책 고백과 평화 통일을 위한 헌신을 다짐해 온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 교회는 민족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의 고통스런 삶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말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평화와 화해의 복음(엡 2:14-17)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곧

54) 박완신 외, 평화 통일과 북한 복음화 (서울: 쿤란 출판사, 1997), 격려사.

신앙의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둘째, 분단의 극복은 선교적 당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음(골 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적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23-24)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해방을 위한 선교 사역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골 1:20)이심을 믿으며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고백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에 매어 있으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고전 12:12-26)을 믿어 왔습니다.⁵⁵⁾

이상의 NCCK의 통일관을 요약하면 민족 통일 운동이 곧 선교 운동이라는 것이다. 보수측은 통일과 선교를 구별하고 있는데 반해 진보측은 이것을 하나로 보는 데서 선교 신학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 기독교의 보수진보간에 구별된 통일관을 일별해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통일 운동의 내용과 그 실적을 다음 장에서 알아봄으로써 그것의 허와 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과 성과

1.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조직 활동과 통일·선교 정책

가. 조직과 활동 범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1988년 7월7일 노태우 정부의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6개항 특별 선언 이후 파격적인 대북 교류 정책에 따른 통일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듬해 46 교단의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출범되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를 대변한 NCCK의 강경 노선에 대타로 출범한 한기총은 초기엔 미미하여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점차 가입 교단이 늘고 사업 규모를 늘려 가면서 대국 내 문제와 대북한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 대다수 교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

55) 1980-2000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2000), 15.

다.

그러면 한기총 내에 대북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남북 교회 협력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는 무엇인지 먼저 일변해 보자. 우선 임원 및 직원을 보면 고문 - 박맹술, 이성택, 정진경, 최훈, 지덕. 지도 위원 - 한기총 가입 50개교 단장 및 16개 기관장. 실행 위원 - 한기총 가입 교단 총무 및 16개 기관 총무. 상임위원 - 위원장 김삼환, 부위원장 김국일, 박태희, 길자연, 박완신, 서기 김학인, 부서기 서정화, 회계 양혜원, 부회계 소강석. 감사 정중열, 여홍윤, 전종인, 상근 직원, 선교 국장, 박요셉, 전임 간사 베드로, 강철민, 김경주, 협동 간사 조기연, 노용호, 박현군, 박정수.

한기총 산하에서 주요한 북한 선교 연합 기구인 남북 교회 협력 위원회는 민족의 국시인 '평화 통일'과 한국 교회의 공동 선교 과제인 '북한 복음화'를 위해 분투의 노력을 다하여 그 동안 많은 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동위원회는(위원장 김삼환) 5개 전문 위원회로 조직되어 연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 돕기 선교 위원회,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 통일 선교 정책 위원회, 통일 선교 대학, 귀순 동포 결연 사업 본부 등이 24개 대북 선교 사업과 7개 통일 사업 및 37개의 북한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5개 위원회의 사업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 동포 돕기 선교 위원회/위원장 김국일 - 1995년 6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북한 동포 돕기에 주력하고 있다.

②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위원장 박태희 - 분단 전 북한에 존재한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회원 교단 별로 재건 책임을 지휘 추진하고 있다.

③ 통일 선교 정책 위원회/위원장 박완신 - 한국 교회 내에 교파를 초월하여 통일과 북한 선교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선교 정책 연구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④ 통일 선교 대학/이사장 최성규, 학장 길자연 - 4만 한국 교회와 2천 한인 교회를 통일 선교 대학의 분교화 1천 2백만 기독교인들을 통일 선교 대학생으로 하는 기치 아래 학생들을 모집하여 북한 선교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⑤ 귀순 동포 결연 사업 본부/본부장 김국일 - 1998년 12월에 발족하여 현재까

지 탈북 가족과 한국 교회와 가족 결연 신앙 결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 통일·선교 정책

본 연합회의 통일·선교 정책은 1996년 12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교회 보수측에서 내세우는 통일과 선교 정책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조직 활동과 통일·선교 정책

가. 조직의 활동 범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산하에 15개 위원회가 있으나 그중 통일 위원회의 활약이 80년 이후 크게 돋보이면서 세계 속의 한국 교회 위상을 끌어올리는 일에 독보적인 기구로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교회 200교단 중 6개 교단만이 가입한 취약점이 있으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반세기에 걸쳐 한국 교회를 대변하여 대사회 대국제의 단일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은 한국 교회로선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특히 유신 체제하에 펼친 민권운동은 곧 분단 극복을 위한 정초 운동이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것은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한 순교자적 자세였다.

NCCK로 호칭되는 이 협의회는 통일 문제와 북한 선교의 문을 두드리는데 북한의 기독교도 연맹과 공식적으로 상대를 하고 그들 임원들과 계속 만나고 협의하는 것이 주 업무처럼 해 오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 속의 교회 존재를 인정한 과감한 조치로써 보수측에서 볼 수 없는 진일보한 선교 정책 하나였다.

나. NCCK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88 선언문⁵⁶⁾

NCCK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88 선언문은 1988년 24회 올림픽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세계인들의 시선과 관심이 분단된 한국에 쏠리던 그해 2월 29일에 공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다분히 진보적이지요, 과격한 표현이 군데군데 있어서 보수 계열의 교단과 단체로부터 호된 비판과 규탄을 받은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

56) 이 선언은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 교회 본당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제37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기립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면 모두가 선견지명이 있는 예언자적인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공포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88 선언문 전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 방향과 반성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문제 놓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늘 충돌되어 왔다. 혁신적이며 진보성이 강한 NCCK의 주장에는 언제나 복음주의 단체들의 반발이 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금의 통일 문제를 놓고 지난 1988년 2월 29일에 선포된 이른바 88 선언문에 대하여 당시 많은 단체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며 규탄성 높은 비판을 가해 온 것은 분단의 극복보다 더 어려운 국내 기독교 단체들의 분열 극복이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까? 그것은 그들의 신학적 배경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특수 사정에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향후 당면한 통일 문제를 놓고 그 운동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반성과 아울러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본다.

우선 88 선언문이 NCCK에서 나온 이후 기타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지적하고 비판한 문제를 놓고 그 폭을 좁힐 수는 없을까 하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당시 KNCC의 통일론에 대한 복음주의 입장⁵⁷⁾이란 성명서에서 지적된 문제는 여섯 항목이었다.

1.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KNCC의 선언문은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전통에 나타난 평화 운동을 주로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인권 및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인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KNCC의 폭넓은 신학적 배경의 산물로 Missio Dei의 개념이 해방신학이나 민중 신학에서 반영된 논리의 일환이므로 여기에 대한 어휘상의 절충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공존에서 비롯하는 평화 추구에 대한 것은 현 소련 내에 민주와 공산주의가 공조하듯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주장일 수도 있

57) 김동완,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2000), 114-115.

다.

2. 북한 교회에 대한 이해

KNCC가 주장한 이북에도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복음주의 협의회는 이를 부정한다는 문제가 1988년 3월 30일 복음주의 협의회가 성명서를 낼 당시는 북한 교회의 존재를 부정할 만도 했으나 두 달 후인 5월 30일에 봉수교회가 최초로 세워져 300여 명이, 92년 11월 22일에 칠골 교회가 설립되어 1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으며 가정 교회가 무려 500개가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한기총에서도 시인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8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힘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3. 한국 교회에 대한 이해

복음주의 진영은 KNCC가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전통과 활동을 정치적 시각에서 본 나머지 해방 전 신사 참배 사건까지도 민족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한 바 있다. 우리는 ‘정치’란 용어나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책이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세속적인 것으로 보려는 시도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어디까지나 세상 속에서 전개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공의요 평화이므로 민족해방 운동이란 것이 진정으로 선교와 정치의 결과로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88 선언문 속에 나타난 한국 교회상을 읽고 정의를 내릴 때에는 앞 뒤 문맥이나 문장을 거두절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KNCC에 대한 이해

“한국 기독교회의 73개 교단 중 일부인 6개 교단만이 가입된 KNCC가 이번 성명서의 제목에다 ‘한국 교회 선언’이라고 붙인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선언한 주체가 수에 있어 많은 작든 간에 한국 안에 있는 교회라면 한국 교회란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KNCC는 해방 후부터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였

고 인정이 되어 온 단체이므로 이런 문제를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기독교적인 자세가 못된다. 역사는 침묵하는 다수보다 활동하는 소수에 의해 발전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미군 철수에 대한 이해

미군 철수는 우리 국민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가장 예민한 사안이다. 복음주의 협의회가 성급하게 KNCC의 미군 철수 문제를 공격한 것은 88 선언문을 자세히 읽지 않았던 잘못이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철수를 말한 것이지 무조건 당장 철수가 아니었다. “평화나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될 때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UN 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6. 양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KNCC 선언문은 세계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듯하다.” 상기한 이 양대 정치적 이념은 현존 세계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념이므로 만에 하나 공산주의를 부정한다면 통일은 바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반세기를 끌어온 냉전이며 풀 수 없는 숙제였으므로 현 위치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력 분위기로 유도하려면 두 체제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굳게 닫힌 38선을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외적인 선포용이지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상 KNCC와 복음주의 협의회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남북한이 등을 돌리고 있듯이 남한 내의 교단끼리도 38선보다 더 높은 담을 쳐 놓고 화해와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학자 헤겔은 역사 발전의 원리로 정반합의 기본 틀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정과 반이 이제 합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6-15 정상회담 이후 38선을 오가는 도수가 잦아지고 있는 즈음에 이제 한국 교회, 4만 5000 교회 1200만 기독교인들의 한 목소리가 요구되어 진다.

지난 2000년 8월 2일, 한국 교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KNCC와 NCCK가 한 자리에 모여 남북통일에 대한 합의된 8-15 공동 선언문⁵⁸⁾이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람직한 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숙제를 푸는데 KNCC는 대외적인 외치에 힘쓰고 NCCK는 대내적인 내치(內治)에 영역을 분담하는 것이 좋을 성싶다. 다시 말해 전자는 북한 교회 대표인 기독교도 연맹과 계속 만나 실마리를 푸는 작업을 하고 NCCK는 북한 내부 선교 문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KNCC의 정책과 NCCK의 전략이 통일은 물론 북한 선교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혜요, 실천 의지라고 결론짓고 싶다.

58) 김동완,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443.

제 5 장

한국 교회와 북한 선교

제 1 절 폐쇄된 북한 접촉의 어제와 오늘

1. 미국 시민 한인 목사들의 초기 북한 왕래

미국 교포 사회는 기독교적 문화 사회에 뿌리를 내린 탓인지 사상적 대립으로 분열된 일본의 한인 사회와는 달리 동포애를 나누며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온 것이 그 간의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무너져 민족적 분열의 아픔을 앓기 시작했다. 일본 교포 사회의 이념 싸움이 그대로 미국 교포 사회로 옮겨와 상호 반목과 불신의 대결 구도로 치달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정일형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정의순⁵⁹⁾은 60년대 당시의 미 교포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땅이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념과 체제는 불신과 대결과 비극을 낳게 하였다. 그 응어리가 결국에 가서는 1961년 새로운 영구 집권적 군사 독재 정권을 태동케 하였으니 이에 맞서서 1975년 중반기부터는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 상징국이며 대한민국의 우방인 이곳에서도 일부 교포들이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고 1인 독재 체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교포 사회에 생기면서 대립과 분열과 분쟁으로 혼탁케 되었다.⁶⁰⁾

미국 교포들은 이런 분위기에 젖어 살면서 한편 고국의 정세 변화에 늘 신경이

59) 순교자 정관백 전도사 아들로 평북 선천 출생, 일본 동경 중앙 대학, 민주당 최고 위원 정일형 박사 비서실장, 5.16 군사 혁명 후 미 망명, 한민통 남가주 지방 위원장, 한국 민주회복 촉진 위원 회장 역임.

60) 정의순, 신의주 하늘에 비쳤던 큰 별 (진명 문화사, 1992), 27-28.

곧두서는 정치 지향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경제적 안정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관심사였다. 이때 실향민들 중에 이북에 두고 온 부모, 형제의 소식을 알기 위해 서신을 통해 생사 확인 작업을 하거나 만주에 있는 친척을 통해 수소문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야 한다는 절박감은 교포 사회에 편만 되어 있었고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평양신 학원이 개설되어 세인을 놀래게 했다. 그것이 대외 과시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74년에 가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WCC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그 후 캐나다, 미국 등의 교회 대표들의 평양 방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 방문은 친 북한 계열에 국한되었고 대한민국의 법적 허용이 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였다.

그 선언문 1항에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때 북한 당국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항상 외쳐 온 ‘조국 통일 민주화 기지 창설의 길(적화통일)’⁶¹⁾이 손쉽게 열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방북 절차를 만들어 방북 할 인사들을 초청하는데 먼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의 생사를 확인하고 해외 동포 원로 위원회에서 성분 심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발부되도록 한 것이다. 이 초청 위원회가 바로 조선 노동당의 방계 회사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하부 기관이란 것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친 북성 인사들이나 이용가치가 있는 인사들에게만 초청장이 발부되는 고로 많은 실향민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기회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입국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북한에 통일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지난 40년 동안 끔뽏 얼어붙었던 북한 땅에 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입국 그 자체는 복음의 빛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기회요 길이 아닐 수 없다.

남북통일의 시발은 먼저 남북인 간에 접촉과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야 한단데 있다면 7·7 선언 이후 많은 재미 실향민들이 이북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친척을 만나고 옴으로써 찢줄의 정을 나눌 통일의 의지를

61) 정의순, 신의주 하늘에 비쳤던 큰 별, 27-28.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이다. 기록상으로 보면 초기 방북한 실향민들 중에 노희선, 김상락, 이광덕, 조동진⁶²⁾ 등이 있다. 목사란 직함만으로도 한줄기 주의 빛을 흑암의 땅에 비취 주고 온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북한 행렬은 1995년까지 재미 교포 6,000명에까지 이르러 이산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될 수가 있어 통일의 분위기 조성에 하나의 계기를 가져왔고 시발점이 된 것은 우리 민족으로 봐선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 방문중에 의문사한 LA 영락 교회 김계용, 전동국 등⁶³⁾의 경우는 많은 불신과 분노를 미주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에 안겨다 준 꼴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통일의 염원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전화위복이었다.

2.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접촉과 방문

1948년 남한에서 UN 감시 하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후 북한 땅으로 들어간 남한의 인사들은 자진 월북한 군인들이거나 회담 차 들어간 소수의 공무원들 외엔 1989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깨어진 것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 자유 왕래를 골자로 한 소위 88선언 이후였다. 한국 교회는 그 해에 치르게 될 서울 올림픽을 기회로 공산권에서 온 선수들과 임원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서 선교를 기획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부터 공산 세계에 대한 선입관이 무너지고 그곳에도 선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함으로써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 이듬해인 1989년 소련에서도 작년에 시작된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이 계속 불어 공산권 전체가 봄을 맞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바람에 꿈꿈 달렸던 문이 남한 쪽으로 열리고 있었다.

조선일보사의 조용종 특파원이 1월 하순경에 9박 10일 동안 북한을 다녀와 “열리는 북한”⁶⁴⁾이란 제목으로 연 6회에 걸쳐 기행문을 실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에

62) 1995년 2월 총회 교육부 주최로 열린 민족 통일과 민족 교회 세미나에서 조동진이 발표한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통일 환경의 변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 준비”라는 글 참조. 조동진은 1978년 55세로 서울 후암 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북한 연구와 대북 활동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미 윌리엄 케리 대학교 교수로, 동교 부설 고려 연구소 소장으로 재임중 북한을 10회 방문하여 1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족 통일 에스라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63) Ibid., 33.

게 호기심을 던져 준 새로 세운 성당과 교회당의 사진도 실었다. 2월이 되자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이 9박 10일 동안 북한을 다녀왔다.⁶⁴⁾ 김일성에게 금강산 개발 계획을 내놓자 북쪽은 대환영을 했다.

이런 주위의 화해 바람이 한참 불어오던 3월 28일 문익환은 정부의 허가도 없이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북한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통일에 관한 회담을 열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북한의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줄은 당시까지 아무도 몰랐다. 뒤이어 국회의원 서경원, 임수경, 문귀현 등 정부의 허가 없이 차례로 들어갔다. 이들의 북한 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첫째 그해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가 생기고 기독교 강좌가 설립되었고(1995년 현재 1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목사라는 명칭이 민족 통일 운동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이북 동포들로 하여금 거국적으로 환영되고 언론을 탐으로써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것이 남한 동포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89년 초기의 그 어렵던 북한 행이 10년 동안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보편화가 된 것은 초기의 희생이 가져다 준 열매였다. 그들은 거의가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고 심지어 통일 관계 세미나를 열었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 운운하여 사법 처리되는 무서운 견제가 뒤따르기도 했다.

1995년 통일 희년을 맞아 그 동안 남북 지도자간의 화합과 공동 예배 등을 가져 비록 통일의 희망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남북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많은 인사들이 북한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한측의 북한 접촉의 열의와 염원의 결과였다. 소망 교회 박선희 목사를 위시 바울의 집 조동진 목사 등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 개교회의 목사들이 이북으로 들어가 두고 온 가족을 만나고 봉수칠골 교회에 들려 예배를 봄으로써 북한 선교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된 것이다. 비록 그들이 북한 사람들을 붙들고 전도하는 일이 없어도 간접적인 선교하는 효과를 얻었다. 굶주리는 그들에게 갖가지 구제품과 위로금을 주는 손길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이 본래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64) 조선일보, 1989년 1월 22-31일자(전 6회 연재): ① 평양의 첫 밤 ② 평양서 만난 재미 교포 ③ 눈덮힌 금강산 ④ 새로 세운 성당, 교회 ⑤ 학생 축전 준비 열기 ⑥ 변화의 참 모습.

65) “정주영씨 북한 9박 10일,” 조선일보, 1989년 2월 4-8일. ① 금강산 개발 내놓자 북 “빨리 하자” ② 50년 된 감나무 보이자 “우리 집이다” ③ 정회장 열창에 <고향의 봄> 남북 합창.

1999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왕래는 이산가족과 예술인들의 상호 방문으로 교류의 길을 터놓고 있음을 보아 머지않아 남한의 북한 접촉에서 상호 교류하는 일이 전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북한 선교를 위한 꾸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접촉 시도는 북한의 해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빈번히 결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접 선교인 것이다.

제 2 절 북한의 기아·질병 해소를 위한 구호 활동

1. 한기총의 북한 동포를 위한 구제 캠페인

90년대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은 그 성격상 크게 나누어 '외교'와 '구호'의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⁶⁾ 전자는 1986년부터 NCK가 북한 교회의 대표 기관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⁶⁷⁾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려는 방법과 후자는 한기총과 기타 구호 단체가 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는 구호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여 주체사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본심으로 돌리려는 방법 등이다. 50개 교단이 가입한 한기총은 1990년 이래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94년부터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자연 재해(1994년 냉해, 1995년 대홍수, 1996년 한해, 1997년 해일)로 인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실적과 결과는 이러했다.

당시 한국은 80년대부터 대풍년으로 인한 쌀 생산 잉여로 그 보관 처리에 골머리를 알아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자 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일보 한기총이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그 후원금을 이북 동포 돕기에 나선 것이다. '쌀 풍년을 사랑 풍년으로'라는 구호는 전국 교회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아 7년 동안 75억 원의 성금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첫해인 90년 7월에 쌀 1만 가마(8억 3천만 원 상당)를 북한에 전달한 이후 정부 당국의 반대로 그 대상

66) 김형석, "북한 선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새 천년 복음 통일을 준비하라 (강의안, 한기총 통일 선교 대학), 59.

67) 1946년 10월에 설립된 공산당 산하 북한 교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훗날 조선 기독교도 연맹으로 최근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개칭되었다.

을 필리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해외 20여 개국과 국내 사회복지 단체로 바꾸고 말았다.⁶⁸⁾

그러면 현재까지 수많은 기관 교회들이 모은 구호금과 구제품은 계속 북한으로 보내어지고 있는데 한기총의 경우 의류 40컨테이너, 식량(의약품, 생필품) 45억 원 상당 등이 지원되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제반 교류가 붓물처럼 터진 가운데 한기총은 북한 선교의 관심사를 전국 교회로 확대시키고 그것을 지교회별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 한기총 산하에 있는 남북 교회 협력 위원회는 현재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북한 선교의 성공을 위해 '통일 북한 선교 총력 100만 선교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서고 있다.

2. 한국 교회 북한 돕기 단체의 구호 실태

북한 지원 활동 단체 중 금년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곳은 79억 원을 모금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상임 대표 김준곤 외 3인)이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범시민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금년 2월부터 총 19차에 걸쳐 계란, 누에알, 농약, 손수레 등 주로 생필품 위주로 물품을 지원했다. 한민족 복지 재단(이사장 최홍준)은 평양 어린이 병원과 조선 의약 협회를 중심으로 X-ray 촬영기를 비롯한 의료 기구와 의약품 그리고 병원 설비에 필요한 자재 등 689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국제 옥수수 재단(이사장 김순권)은 옥수수 종자 보급과 슈퍼 옥수수 연구용 종자, 비료 그리고 이에 필요한 농기계 등 24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 재단은 처음 3년간의 협력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북한의 요청으로 다시 10년을 채우기로 하고 7년 연장 계약을 맺어 북한 식량 증산의 첨병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월드 비전(회장 오래식)은 1994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에 뛰어든 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수 공장과 협동 농장 사업 외에 씨감자 수경 재배와 의료 분야에 17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북한 동포들의 기아 해결을 위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산하 15개 교단과 10개 단체의 지원 활동을 돕고 있다.

기아 대책 기구는 1994년부터 소규모 후원이지만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대북 지

68) 김형석, "북한 선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60.

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억 4,260여 만원 상당의 수경 재배와 분유, 젖염소 등을 지원했다.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 정부와 교회 및 기독교인들로부터 후원 받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계속 보내 주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는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 연합회를 통해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해 생필품과 젖염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건국 이후 50년만에 햇볕 정책을 내세워 지난 6월 13일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킨 후 북한에 비료 30만포, 쌀 60만 톤(50만 톤 유상, 10만 톤 무상)을 지원키로 발표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해 민간 지원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 지원 품목은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 식량 위주에서 생필품, 농산물, 수경 재배 등 농업 기술, 각종 의료 기구, 건축 자재 등 기초 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 합작 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국제 옥수수 재단에 8억 5,800만 원, 유진벨 재단 7억 9,200만 원, 월드 비전 7억 4,700만 원 등 10여 개 단체에서 총 4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민간 지원 60퍼센트 이상이 교회가 담당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통일을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교회의 입장이 선교라는 방편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대북 지원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열거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제 3 절 대북한 간접 선교를 위한 각 단체의 전략

1. 한기총의 경우와 그 실적

가. 북한 선교를 위한 전문인들의 선교 사역

남북 분단의 특수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직업을 갖은 전문인 선교사는 무한한 잠재력과 실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 북한은 선교사나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통일 전후 이들 전문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과 상대 가능한 직업으로 실제적인 대상 자원의 선교 접촉과 선교 노하우를 축적 하는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⁶⁹⁾

〈표 1〉 단체 지원 사업 현황(2000년 집계)⁷⁰⁾

단체	지원 사업	총지원액(원)
한국 기아 대책 기구	분유 지원, 수경 재배 지원, 젖염소 지원	1억 4260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농산물(감귤, 계란, 씨감자, 밀가루, 미역 등)옷감, 비료, 컴퓨터, 담요, 손수레, 건축, 잠종, 학용품, 생리대, 내의	79억
한국 이웃 사랑회	사료,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 비료, 농약	12억 3700만
월드 비전	국수 공장 운영, 협동 농장 지원, 수경 재배 지원, 씨감자, 의료 지원	17억 6000만
한민족 돕기 운동 본부	의약품(의료 장비 병원 소모품 앰블런스 등), 생필품, 전기제품, 건축 자재	미화 689만 6882
국제 옥수수 재단	옥수수 종자, 슈퍼 옥수수 연구용 종자, 비료, 농기계, 작업복	24억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 연합회	생필품(아동 의류 머플러 목도리 등), 수경 재배 시설, 삽	2억 6500만
유진벨 재단	결핵 퇴치를 위한 의약 및 의료 기구	
한국 기독교총 연합회	의약품, 생필품(담요, 의류)	3억 5000만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을 통해 생필품 지원	
(재)한국 대학생 선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통해 젖염소 의류 등 지원	

한기총은 선별된 이들에게 ①아가페 훈련 ②말씀 훈련 ③기도 훈련 ④제자 양육 훈련 ⑤특수 사역 훈련 ⑥생활 훈련 ⑦언어 훈련 ⑧전문지식 기술 훈련을 시킨다. 대상자들은 ①KEDO 신포 지구 노동자 ②금강산 현대 관광 직원 ③개성 및 서해주공단 노동자 ④국제 옥수수 재단 농업 과학자 ⑤유진벨 재단 결핵 퇴치 의료 사역자 ⑥남북경협 실무자 ⑦국제 식량 기구 파견 직원 ⑧남북 이산가족 사업부 실무자 ⑨남북 회담 실무자(통일부 등)이다.⁷¹⁾

69)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현황과 발전 방안, 3-4.

70) 기독교 신문, 2000년 12월 6일자.

나. 북한 지하 교회 성경 및 단파 라디오 지원

한기총은 전국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을 통해 성경이나 단파 라디오를 만주 현지에서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500 지하 가정 교회 쪽으로 몰래 보내 주고 있다. 성경이 귀한 북한에 성경을 들여보낸다는 것은 개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단파 라디오는 남한에서 전파로 띄우는 복음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움직이게 하는데 최고의 매체가 된다. 오히려 청각을 통한 미디어의 기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년에 몇 권의 성경책과 몇 대의 라디오를 보내느냐는 것은 비밀로 되었으므로 어쨌든 비밀 루트를 통해 보내어지고 있음이 한기총 북한 선교 분과위원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다. 북한 선교를 위해 만주에 선교사 파송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입국은 국내에서는 선교사로 파송되지만 입국 절차상 회사 임원의 직책을 가지고 들어가 암약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기총 산하 50개 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만주로 들어가 북한 선교에 다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그들의 숫자는 비밀이므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나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 몰래 하는 선교는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는 동포들을 상대하거나 만주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러 오는 북한 동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작이나 고난당하는 동포에게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라. 문서(설교 자료, 전도지, 서적) 사역

북한에는 대외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봉수, 칠골 두 교회이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지하 교회가 통계적으로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지하 교회가 비록 건물 없이 일반 가정에서 몇몇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그들도 역시 지상 교회와 다르지 않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순서는 같은 것이다. 다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재직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설교 자료, 전도지, 서적 등이 없어서는 안될

71) 기독 신문, 2000년 12월 6일자.

꼭 필요한 자료인 것이다. 한기총은 이런 가정 교회 쪽으로 암암리에 자료들을 공급해 주고 있다.

마. 탈북 꽃제비 고아원 운영

두만강 상류 지역엔 겨울이면 배고파 강을 건너 만주로 밀입국하는 아이들이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 연변 지역에 이들이 홍수로 인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될 만큼 시장 바닥엔 이들의 구걸하는 모습, 쓰레기를 뒤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곤 했다. 한기총은 이들 중에 정말로 갈 곳조차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 입혀 주고 먹여 주는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것은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 구제 사업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신자로 키우는 것이다. 이들 북한 탈출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국경 없이 드나드는 제비와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바. 중국 탈북 동포 지하 신학교 운영

한기총은 북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공산당 체제하에서 압박을 받다가 탈출하여 국경을 넘어 만주에 들어온 동포들 중에 전도한 후 전도인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 지하 신학교에 입학시킨다. 이 신학교는 외부로 드러내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마련한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므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어떤 경우 몇 명을 놓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복음의 누룩이 되는 것이다.

사. 조선족, 한족 처소 교회를 통한 선교 지원

한기총은 만주에 있는 조선족 혹은 한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곳은 북한 동포들이 친지 방문차 와서 친지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조선족이나 한족의 집에 와 있을 수도 있는 북한 동포들을 만날 수가 있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다자 선교는 중국과 북한 동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관계로 어느 쪽이든지 선교의 대상이 되므로 때로는 이중적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 탈북 동포 미션홈 운동과 정보 활용

탈북 동포를 상대로 하는 선교는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성과는 매우 지대하며 놀라운 것이다. 그들은 해방 후 50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고난의 길을 살아온 동포들이므로 통일 후 만나야 될 바로 그 분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김일성 우상 신앙에 폭 빠졌던 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다. 한기총은 현재까지 탈북한 4000여 명 중에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통계는 향후 북한 선교를 가능할 수 있는 수치이며 그 가능성을 말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2. NCCK의 경우와 그 실적

가. 통일을 위한 각국 교회 협의회와의 외교적 노력

70년대 유신 체제를 상대로 민주와 민권 문제를 들고 줄기차게 저항했던 NCCK는 제 3공화국의 종말로 말미암아 80년대에 들어오자 이슈를 남북통일로 바꾸고 현재까지 20년을 한결같이 외교적 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 6월 8일 국토분단의 아픔을 같이 해 온 서독 개신 교회 협의회와 NCCK가 자리를 같이하고 직의 고백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가진 이 후 그해 11월 5일 제 1차 조국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가 비엔나에서 열려 국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듬해 NCCK는 31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통일 문제 연구원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통일 캠페인에 나섰다.

그후 NCCK는 국내에서 통일 문제 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1985년 초까지 2년 동안 당국의 저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그 해 2월 4일에 강행하여 겨우 뜻을 이루었다. 이 해에 열린 34회 총회에서 한국 교회 평화 통일을 선언하고 총회 선언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했다. 1984년 10월 29일 WCC 국제 문제 위원회가 일본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기회를 잡아 NCCK는 한반도의 상황 및 교회의 입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세계 교회가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여 성사시켰다.

일년 후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는 1985년 11월(11-19)에 WCC 대표단 일행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공식 방문하여 조선 기독교 연맹 서기장 고기준 목사를 만나 남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하도록 권유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들려 북한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여 통일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었다. WCC 국제 문제 위원회는 남북 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을 위해 제1차 글리온 회의에 이들을 처음으로 초청 성만찬을 함께 하며 감격을 나누고 평화 통일에 관한 입장을 상호 교환했다.

그후 NCKK는 수차 '한북미 교회 협의회' 등 외국 교회 협의회와 제휴하여 통일 분위기를 일으키고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호소하여 동의를 얻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냉전 구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동서가 화합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 체제가 한계를 느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88년 1월을 기해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산당이 무너진 것이다.

NCKK는 드디어 1988년 2월 29일 서울 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른바 통일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입장이 될 88 선언문을 발표하여 호응과 물의를 빚어 교계에 큰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4월 25일 NCKK는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 협의회를 인천 송도 비치 호텔에서 열고 내국인 200명, 외국인 70명, 재외 교포 30여 명이 참석하여 88 선언문을 지지하고 이의 실천에 에큐메니칼 교회가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회는 공산권 대표들이 당국의 비자 불허로 인하여 불참하는 등 방해가 있었으나 대회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해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해방이 된 소련과 동구권을 겨냥한 북방 정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꿈을 이루겠다는 데 주목하고 그해 7월 7일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자유 왕래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7 선언문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듬해 3월 28일 진보 계통의 인사인 문익환이 북한에 밀입국함으로써 국가적인 충격을 준 가운데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불태워 준 일대 사건으로 그 파장이 매우 컸다. 1990년 11월 20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통일 운동기구 결성 3자 실무 회담'의 대표들이 베를린에서 남북한 해외 동포 대표 100여 명과 같이 회의를 열고 '조국은 하나다'라는 깃발과 함께 베를린 3자 실무 회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담 후 귀국한 남측 대표 조용술 등 3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8

월 11일에 1991년도 남북 평화 통일 세계 기도 주일 예배가 서울에선 광림 교회, 평양에선 봉수교회에서 각기 열렸다. 8월 26일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는 남측 기독교 교회 협의회 및 기독교인에게 인권 회복 투쟁 격려 대남 편지를 발표했다.

그해 UN총회에 남북 동시 가입이 승낙돼 반세기 동안 국제 사회에서 추방된 북한 정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격이 되었다. 그해 10월 (11, 12일)에 '희년 사업 실무 협의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NCCK대표 및 조선 기독교도 연맹 대표와 세계 에큐메니칼 단체 대표 등이 모여 제3차 글리온 회의에서 합의된 희년 5개년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 10월 27일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서기장 고기준이 처음으로 교회 협의회 권호경 총무를 북한으로 초청하였으며 11월 13일 미국 NCC 초청으로 NCCK 회장, 총무 및 조선 기독교도 연맹 고기준 서기장 등이 만나 통일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1992년 1월 (7-14일) NCCK 권호경 총무가 공식 방북하여 '남북 기독교 협의회' 평양 개최에 관련 개회 시기 등 실무 문제를 협의하였고 남북 공동 기도문 작성 및 봉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 김 주석 면담, 1992. 2. 17 서울 개최 예정인 제41차 NCCK총회에 참석하도록 북측 기독교 인사들을 초청하여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무렵 남측 기업인들이 북한에다 세운 공장으로부터 첫 남북 합작 제품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NCCK는 이 무렵 북측 대표들 초청의 실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켰으나 갑자기 북으로부터 참가 보류 통보가 와서 좌절되었다.

93년에 들어와 NCCK는 통일의 염원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대중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남북인 간 피 잇기 대회를 열어 65,000명이 독립문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48km를 이었으나 북측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 행사로 끝났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통일 희년을 1년 앞두고 북측 조선 기독교 연맹 서기장 고기준이 소천하여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1995 3월(28-31) '한반도 / 조선 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 협의회'가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개회 선언문 채택 및 통일 희년을 맞는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와 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남북의 통일 분위기는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에 와 있었다.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95년 통

일 희년의 해를 맞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1994년 여름 김일성의 서거를 통해 정치권은 긴장하고 통일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버렸다. 여기에 94년부터 북한 전역에 몰아닥친 냉해와 95년 대홍수, 96년 한해, 97년 해일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통일 문제 논의에 앞서 민생 문제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NCK는 WCC를 통해 1995년까지 4차례 모였고 재일 대한 기독교 총회를 통한 만남은 1990년 7월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1998년까지 6차례 걸쳐 있었다.⁷²⁾

1998년 5월 26일에는 6명의 남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8·15 남북 공동 기도문’과 함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간다⁷³⁾는 남한 정부의 햇볕 정책에 버금가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NCK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각국의 기독교회 협의회와 제휴하여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 기독교 연맹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사회 내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은 88년 5월 30일 봉수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했으며 92년 11월 23일에 칠골 교회를 설립하는 개가를 올렸다. 현재 가정 예배소가 500개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북한 공산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보여준 NCK의 외교적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지도자를 사이에 통일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통일은 물론 선교를 위한 밑거름으로써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 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북한 돕기 운동 전개

NCK의 통일 전력은 남북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초를 두고 많은 접촉과 회담을 통해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NCK는 이런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북한 간접 선교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참여하여 그 성과를 올리는데 헌신한 것이다. 우선 그들은 1988년 2월 29일 평화 통일을 위한 88 선언문을 발표한 뒤 해마

72) 한기총 통일 선교 대학, “최경일 목사 남북 화해와 교류에 따른 북한 선교의 실천 방법론,” 새 천년 복음 통일을 준비하라, 25.

73) 중앙일보, 1998년 6월 5일자.

다 8월이 오면 '평화 통일 기도 주일 연합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렸다. 통일이 인간의 힘만으로 이를 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도 모임이 그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금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통일과 선교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십분 활용했다.

다음으로 NCKK 평화 통일 희년 준비 위원회는 1992년 12월 8일에 '남북 나눔 운동' 창립 준비 예배를 가지고 남북한 나눔 운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이듬해 4월 27일 평화 통일을 바라는 '남북 나눔 운동' 창립 예배를 가지고 통일 사랑방 목요 기도회와 겸하면서 구체적으로 북한 돕기 캠페인을 벌렸다. 1994년 냉해로 인한 북한 전역이 식량 생산 차질로 인하여 동포들이 기아에서 허덕이자 남북 나눔 운동 본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사랑과 나눔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 무렵 남북 나눔 운동 본부는 기청협과 연대하여 통일 성가 부르기 대회를 열었고 또 나눔 본부는 '통일과 선교를 위한 94 복음 민족 역사 대회'를 개최했다. 또 나눔 운동은 '남북 산화전'을 기획하여 북측 화가의 산품 43점을 전시하고 북한과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에 간접적인 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다.

1995년 9월 29일, 북한 전역에 일어난 대홍수로 인한 전답 유실과 식량 생산 차질로 북한 동포의 기아가 극심하기에 이르렀다. NCKK는 이에 '한국 기독교 북한 수해 복구 지원 운동 본부'를 조직, 나눔 운동, 봉사회, 국제 기아 대책 기구, 이웃 사랑회 등 조직과 함께 연락 기구를 구성하고 9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결정, 지도 기구로써 충실히 그 의무를 실천했다. 10월 7일에는 나눔 운동 본부가 '한국 교회 북한 수해 복구 돕기 운동' 선포식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하고 북한 수해 복구 돕기 운동을 위한 기독교 결의식을 가졌다.

1997년은 한해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를 가져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다. NCKK는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 연합회'와 한국 기독교 식량 은행의 기구 일원화 기념 기자 회견에 범기독교 단체와 참여 시급한 구호 사업에 중지를 모았다. 이 무렵 NCKK 통일위는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한 대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어 북한 동포 돕기 평화의 성미 결의 대회 및 대정부 촉구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해 5월 15일 NCKK 통일위는 '북한 동포 돕기 평화의 쌀 및 의약

품 보내기 운동'을 발족하여 한 달 동안 전국 차원에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전개하여 각 교단으로 하여금 각기 밀가루, 옥수수 가루 등을 보내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6월 30일 북한 동포 돕기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기에 '북한 동포 돕기 민간 단체 전국 회의'를 개최,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노동계, 사회단체 등 총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할 때 NCCK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대열에 가세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날로 심각하여 북한 동포들이 국경선을 통해 줄을 잇자 세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기대 속에 통일의 불이 일어났다. NCCK 통일위는 남한의 눈이 중국 국경선으로 집중되자 두만강, 압록강 지역의 '북한 식량난 실태 조사단'에 대표를 파견하여 두만강 국경 지역 답사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NCCK 여성위는 97년 9월 1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북한 동포에게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평화의 쌀 보내기 기독교 여성 운동 본부'를 발족하여 취지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머니 7만 5천 장을 배포하고 전국 총 35곳의 중간 집결지를 경주 인천 대호 제일 창고에 모아 1998년 4월 15일 인천항에 산적시켰다.⁷⁴⁾ 1998년 10월에는 NCCK 통일위가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 연합회의 제7차 북한 지원 물품 인도 작업에 참여하여 조선 기독교 연맹에 물품을 인도했다.

1999년 6월에 가서 NCCK 통일위는 북녘의 기독교인에게 '평화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실시 평화 엽서 120여 개 국내외 교회 및 기관에 배포하여 북한 돕기 운동으로 전개하고 그후 평화의 엽서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통일 의식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 동포를 위한 간접 선교에 전력을 다했다. 1999년 10월 28일, NCCK 한국 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 연합회의 제9차 대북 지원에 참여, NCCK가 지원하는 비료 100톤 외에 5가지 품목, 총 5억 원 규모의 물자를 방북단(백도웅, 윤두호, 신명철, 정정섭, 이철)을 통해 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직접 전달했다. 2000년 3월 25일, NCCK는 예장과 기장의 후원으로 TVCR 200대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 노정선, 유원규, 조정해를 파송했다.⁷⁵⁾

이처럼 NCCK 통일위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쌀 보내기 운동을 위시 각종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전

74) 총집결량 : 평화의 쌀 43톤, 모금참여 3천 6백만 원.

75) 1980-2000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482-544.

개하여 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통일과 선교를 위한 간접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NCKK 통일위는 지난 20년 동안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으로써 통일과 선교에 밝은 미래를 보여 주었다.

3. 기타 북한 선교 단체의 경우

1945년 광복 이후 공산 체제하의 북한 교회는 점차 활동의 폭이 좁아지다가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엔 북한 전역에 있던 지상 교회들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후의 북한은 그야말로 복음의 숨이 멎음으로써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공산당의 강력한 종교 불허 방침 때문이었다. 이로써 북한 교인들은 더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성경조차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선교의 불모지에 전파를 통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1945년 설립된 극동 방송의 대북 방송이 그것이었다. 극동 방송국은 북방 지역 철의 장막 뒤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망라한 사회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파에 복음을 실어 보내기 시작한 것은 선교 열정에 따른 방송국의 단안이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그 폐쇄성의 강도로 말미암아 청취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목숨을 걸고 청취하는 일부 동포들에 의하여 복음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은 방송 선교의 수고한 보람이었다.⁷⁶⁾

한국 교회의 대북 방송은 극동 방송 외에도 한때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시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T·W·R 한국 지부에서 제작된 선교 프로그램들이 꺾의 송신소를 통해 북한으로 송출되고 있다.⁷⁷⁾ 또 사단 법인 한민족 선교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개방과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9개 도시에 복음 방송 설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 방송 선교는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⁷⁸⁾

다음으로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전문 선교 단체들의 활약이다. 한국 교회가 최초로 북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77년에 창립된 북한 선교회였

76) 유관지, 극동 방송 40년사 (서울: 극동 방송사, 1996), 269-272.

77) Ibid.

78) Ibid.

다. 총현 교회 김창인, 신현 교회 정석홍 등이 주축이 된 동선교회는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범하여 잠자던 한국 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후 교계 안에 이와 유사한 ‘기독교 북한 선교회’, ‘북한 선교 훈련원’, ‘모퉁이돌 선교회’ 등 유명한 선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북한 선교 활동을 주도했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점은 북한 당국에 의해 세운 교회와 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단지 북한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로지 직접적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집념으로 모든 선교 행정에 초점을 모았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내에 상존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지하 교회 성도들과의 연결을 모색하고 이에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때로는 식량과 의복을 비롯한 생필품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을 배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모퉁이돌 선교회’의 ‘민들레 작전’은 괄목할 만한 아이디어의 소산이었다. 풍선에다 갖가지 전도지와 생필품을 넣어 겨울 서북풍을 이용하여 이북으로 보내는 것으로 선교비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그 효과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전도 방법이었다. 북한 선교 훈련원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전도 특공대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한때 중국의 조선족 보파리 장사들을 이용한 북한 선교는 이를 전문 선교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조선족 대신에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교육시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근래 북한 선교에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여 주위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것이 한민족 복지 재단, 연변 과학 기술 대학 후원회, 두레 마을 등이다. 이들 다양한 교류 사업은 파탄 상태에 있는 북한 사회에 경제적 유익을 줌으로써 일회성 구제 사업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후원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김형석은 이런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런 구호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적인 훈련과 기술 습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⁷⁹⁾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는 두레 마을이 펼치는 영농 사업이나 한민족 복지 재단의 보건 의료 사업, 연기대 후원회의 기술 교육 등이 북한 사회가 자립과 개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2000년 말 현재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북한 방문 길이 열린 것을 기회로 통일과 선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 교회의 구제 활동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좀더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도록 하는 간접 선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4.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방향과 반성

우리는 현재까지 통일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정책을 각기 살펴 왔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한을 위한 다각적인 선교 전략을 섭렵했다. 정리하자면 진보측을 대변하는 NCKK의 외교적 노력과 보수측의 한기총이 내세우는 구호 관계가 상호 대응하는 두 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북한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이며 전국 교회가 동참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선 초기 한국 외교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선교 활동이라고 하면 선교사들이 타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생기면 이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 코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교 현지에는 기존의 종교들이나 정치적 이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과 충돌을 면치 못한다. 때문에 먼저 복음의 씨앗이 착근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초기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먼저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 출판하여 국내로 들여보내 보급토록 했으며 이것이 문서 선교였다. 다음으로 의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한 의료 선교, 교육 선교가 뒤따랐다. 그리고 불쌍한 고아들을 모아 기르고 가르치는 사회 복지 선교를 펼쳐 기독교가 비록 이방 종교일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종교임을 인식시켜 가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선교의 진행 단계를 배워야 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NCKK 통일위나 한기총의 남북 교회 협력 위원회가 이러한 길을 답사하

79) 김형석, “북한 선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강의안, 한기총 통일 선교 대학), 63.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경우 정세 판단의 착오로 그동안의 노력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것은 바로 온고지신의 교훈을 잊었기 때문이다.

북한 선교 전문가 김형석은 그의 통일 선교 대학 강의안(Ⅱ)에서 북한 선교 실천 방안을 이렇게 열거한 바 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는 북한 선교 단체들을 포함한 보수계의 '직접 선교 절대주의'와 NCKK로 비롯되는 진보계의 '통일 운동 지상주의'가 서로의 영역만을 주장한 채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임을 생각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대북 접근 평화 통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효율적인 선교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선교의 대상이나 방법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둘째, 선교 대상에 대한 성격 규정과 용어 정리 등 교계의 체계적인 연구와 장기적인 선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하 교회와 가정 교회의 구별, 선교의 우선 순위를 교회 재건과 구호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중 어느 것에 둘 것인가 등이 전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별, 선교회별, 교회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선교 단체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 북한 선교를 담당해 온 주체들을 살펴보면 연합 기관이나 교단들은 대표성과 명분을 확고하고 있는 반면 사역의 대상을 '외교', '구호', '교회 재건', '탈북자 돕기' 등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잘 살피고 있는 대신에 재정 사용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프로젝트형 선교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선교는 직접 선교가 아닌 보건, 의료, 교육, 영농, 전산, 기계 설비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반 분야의 기능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켜 북한 복음화를 간접적으로 실천하는 선교 방향을 택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선교 단체간 또는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냉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 교류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금에 통일 지상주의나 선교 우월주의는 금물이다. 한국 교회가 정부보다 지나치게 앞서 나감으로써 '민족 통일'과 '민족 복음화'라는 양대 명제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⁸⁰⁾

80) 김형석, "북한 선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63-64.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통일과 선교라는 거대한 목표를 앞두고 연합회나 교단 각 선교 단체 또는 지교회들이 독자적인 전략을 세워 독주함으로써 공동 목표인 북한 복음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중앙 선교 기구를 세우고 그 산하에서 한 기구로 협심하여 목표를 향한 일사불란한 진행이 요구된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한 인사들이 일어나 NCCK과 한기총의 통일을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지난 2000년 8월 3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 기독교 연합 준비 위원회 제2차 모임을 갖고 각 교단 앞으로 공문을 띄워 총회의 비준을 요청한 바 있었다.⁸¹⁾ 그러나 각 총회의 무관심과 비협조 가운데 한 해를 넘기게 된 것은 양 기관을 해체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연합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과제이므로 순탄한 길만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앞둔 현시점에서 북한 선교의 대과업을 성공시키려면 하나의 연합 기구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각 교단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향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81) "2000년 취재 결산 ④: 교회 연합 사업", 한국 기독교 공보, 2000년 12월 23일자, 3.

제 6 장

통일 이후의 북한 선교 전략

제 1 절 북한 동포를 향한 한국 교회의 자세와 사명

1. 동포애를 통한 협력과 봉사의 자세

우리의 통일은 국토의 회복과 민족의 단일화 내지 정치·경제·문화의 한 울타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평화적이든 흡수적이든 간에 긴 세월을 걸쳐 이질화되었음으로 물리적으로 당장 통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동질성의 회복이 요청되며 통일이 될 때까지 또 한 차례의 긴 과정을 고뇌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세기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북한 동포들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그것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 우선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포애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들은 비록 무신론 공산 체제하에서 김일성 우상을 섬겨 온 바알의 무리들이지만 그 이전의 때묻지 않은 동포라는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그들을 동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동포애라는 입장을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견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와의 동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식하에 그들과 동고동락하려면 우선 협력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

협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러나오는 힘의 분출이다. 그것은 일방적이지도 독자적이지도 않은 차원에서 서로의 힘을 보태며 일을 성사시키려는 마음가짐이요, 자발적인 자세이다. 따라서 통일된 조국에 북한 동포들을 위한 협력은 정말로 중요한 과업이요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지난 세월에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위약한 모습으로 조형화 된 것은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선진 대열에 선 남한 동포들이 특히 남한 교회가 이들

을 지도하고 훈도하는 위치가 아닌 그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질성을 회복할 때까지 그런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경우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설파한 바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여기서 ‘합력’은 본문에서 다루는 바로 협력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서⁸²⁾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평범한 이치인 것이다. 상호 작용은 곧 협력이요, 합력이다. 통일 후에 한국 교회가 꼭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른다면 동질성의 회복이란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으로 봉사의 자세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랬듯이 인류를 위한 봉사가 바로 존재 양식이요, 존재이유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야말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다”(마 20:28).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섬기는 데 있고 그것의 정도는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희생에 이르기까지임을 강조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늘 나라에 계셨지만 이 땅의 병든 자, 매인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종의 탈을 입고 오셔서 봉사의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 생명마저 희생시키시기까지 봉사로써 마감하셨다.

북한 동포는 남한 동포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한국 교회는 이들을 대함의 예수께서 연약하고 가련한 우리를 대하듯이 봉사에서 시작으로 봉사로 끝마치는 희생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그렇게 힘으로써 잃어 버린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육적으로도 남한 백성들과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선교를 위한 정책은 협력과 봉사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을 대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지도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물량으로 과시하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민족 사이에 또 다른 분단의 벽이 생길

82) 1968년 1월 친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가 공동 번역을 결의한 이후 1971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1986년 8월에 친구약 성경 초판을 펴낸 성서로서 이를 이름하여 ‘공동 번역 성서’라 한다.

것이며 그것이 차별로 치달을 때에는 이 땅에 진정한 민족 복음화의 꿈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2. 교육·의료·복지 선교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정착화

‘역사는 스승이요, 인생의 길잡이’라는 명언이 있다. 우리는 본란서도 전장에서와 같이 역사적 교훈과 그 지혜를 얻어 볼까 한다. 지난 19세기 말엽 조선 정부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이단 교리를 전한다 하여 법으로 통제할 바 있었다.⁸³⁾ 여기에 대처하여 선교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한 것이 교육·의료·복지·영농 등의 사업이었다. 교육은 당시의 고루한 서당 교육을 탈퇴하는 신식 교육으로서 서양의 문명을 배워시킨 실용주의적인 현대 교육이었다. 의료 사업은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에게 양약과 서양 의술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줌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 준 것이다. 복지 사업은 고아들을 모아 재워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영농 사업은 선교사들이 낙농을 가르쳤고 과수 재배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여 농촌을 더 잘 살게 하는 데 힘썼다. 이상의 산업들이 선교 초기 단계에서 시도한 간접 선교 방식이었다. 그러면 통일 후에 펼쳐질 교육·의료·복지·영농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심어 줘야 할 것인가?

첫째, 교육 산업의 방법이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은 초기 학교의 불모지에 학교를 세워 문맹 퇴치에 힘썼다. 오늘날 북한의 사정은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학교는 곳곳에 있고 문맹자는 없으므로 더 이상의 신식 교육을 위한 학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우선 북한의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성경 학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 동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하기 위해 저녁마다 동원되어 그 어록을 암송하는 데 많은 교육을 받아 왔다. 그것은 곧 남한 동포와는 달리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책과 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익히는 데 숙달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바로 성경 공부에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으로 북한 선

83)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87.

교에 있어 교육을 통한 효과는 몹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를 두고 한기총 남북 교회 협의회 사무국장인 박요셉은 주체 사상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인 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김일성 우상화로 변질된 주체사상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연결시킬 부분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지난 날 삶을 지탱한 주체사상에 있는 무한한 독서, 무한한 학습, 고급한 인간관, 철저한 순종 등 주체사상의 학습적 긍정적인 면을 분석하여 실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⁸⁴⁾

둘째, 의료 선교의 문제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 실조에 걸린 북한 동포들은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의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 통일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선교에 앞서 의료 봉사를 필히 요구되어지는 긴급 사안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병자의 치유를 겸하면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낸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로 어떤 마을에서는 전도보다 먼저 병자를 고쳐 놓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수가 바로 메인 자리를 풀어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데 충분한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남한 교회는 이북 전역에 기업가들로 하여금 병원을 짓게 하고 그 병원 선교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진료소는 교회가 세워 운영하는 것은 선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료 봉사를 통한 간접 선교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동포들의 의식 해방이 점차 이루어지는 어간에 대체 총족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므로 기독교의 사랑과 봉사는 의료 선교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요인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여기에 필히 요구되며 그 결과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복지 산업의 문제이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비판 세력을 반동이란 죄목으로 많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을 처형한 바 있었다. 그들의 어린 유족들에게 팔린 어린이들이 이북에는 수도 없이 많다.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참다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다. 보육원의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교회가 손수 발벗

84) 박요셉, 주체 사상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인 제언, 94.

고 나서야 선교의 길이 손쉽게 열릴 것이다. 이런 2세 동포들의 보육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이므로 비켜 갈 수 없다. 남한의 5만 교회는 한기총과 NCK를 통해 북한의 정보와 지도를 받으면서 이들 황금 어장에 그물을 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동포를 위한 미래 선교는 밝을 것이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믿음직스런 2세들을 계속 양산할 것이다.

기타 영농, 기술, 전자 등에 관한 기술교육은 국가나 전문 기관이 맡아야 할 분야이므로 이상의 교육·의료·복지 분야에만 교회가 책임을 진다면 선교의 길이 열려 민족 복음화의 성업이 달성될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 오는가? 아직 남한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100년이 넘는 남한 교회의 미숙한 단면이요,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를 척결하고 기독교 문화로 대체시켜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혼합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북한 사회는 그런 봉건주의적 문화가 모조리 없어지고 공산 문화, 즉 주체 사상 문화가 자리를 잡고 반세기를 걸어왔다. 이제 통일은 곧 김일성 우상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면 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대입시킨다면 그 수용 태세는 무서우리 만치 신속하고 확고할 것이다. 남한 교회는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생활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한다. 복음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같이 전파하여 그 문화가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참된 '생활 기독교'를 선교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북한 선교를 위한 당면 문제와 대책

1. 옛 북한 3,040교회 재건을 위한 문제

한기총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위원장 박태희)는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제1기(1995-1997) 북한 교회 사료 연구 및 발굴 기간, 제2기(1997-1999) 북한 교회 재건 담당 한국 및 해외 한인 교회 결연 및 동원 기간, 제3기(1999-2002) 북한 교회 재건의 현재성, 현장성, 미래성을 확보하는 종합 사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북한 교회 재건의 조건은 단일 교단, 연합 사역, 독립 운영의 3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 교회 재건위는 그동안 계획된 제2기 중 발굴한 옛 북한 교회 총수를 3,040개로⁸⁵⁾ 확정하고 이를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속 회원 교단의 교세에 따라 할당수를 정하고 각 교단으로 하여금 산하 교회쪽으로 그 책정액을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지도해 오고 있다.

그러면 우선 옛 북한 교회, 교단별 재건 담당의 내역을 살펴보자.

<표 1> 옛 북한 3,040교회 교단별 재건 담당표

* 해외 - 미국(146) 캐나다(10) 일본(10) 유럽-중동(20) 남미(10) 호주-동남아(10) 중국-러시아(5) =소계 200, 개인(5)

* 나머지 2,834개를 국내 교단별로 할당(교인 6,055명당 1교회 재건 할당)하고 교단 사정에 따라 증감함.

교 단	교회수(1997년초기준)	성직자	신도수	할당수(증감)	참여교회수
1. 대광(합동)	6,288	18,268	2,168,908	867 (+248)	610
2. 대광(통합)	6,184	11,688	2,094,888	846 (+266)	610
3. 기하성(통합)	1,087	2,824	1,214,798	194 (-14)	180
4. 기성	2,492	2,101	786,878	116 (+2)	121(+1)
5. 기원	1,984	2,180	646,860	99 (+11)	110
6. 대광(합동보수A)	1,298	1,008	609,849	111 (-61)	60
7. 대광(개혁A)	2,080	8,880	888,800	106 ()	106
8. 대광(합동경통)	1,898	2,906	610,818	97 (+24)	121
9. 대성	960	868	818,679	66 (+10)	76
10. 대광(고신)	1,861	2,860	888,620	62 ()	62
11. 대광(대신)	1,109	2,046	196,026	88 (+6)	89
12. 대광(개혁B)합선	402	892	62,699	22 ()	22
13. 대광(중앙)	627	882	116,880	28 ()	28
14. 대광(합동보수B)	698	1,660	208,806	22 (-22)	
15. 대광(합동중앙)	462	892	101,860	28 (-18)	4
16. 기독교한국루터회	26	48	6,676	1 ()	1
17. 대광(대광합보)	268	268	164,000	81 (-81)	

8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북한교회 재건 백서 (서울: 진리와 자유, 1997).
cf.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 (서울, 진리와 자유, 1995).

18. 예장(초원)	910	980	120,000	17 ()	17
19. 예장(총회B)	288	461	81,826	11 (-11)	
20. 예	185	280	86,016	11 (-11)	
21. 예장(고려)	287	294	48,408	10 (-10)	
22. 예장(총회A)	811	857	54,720	9 ()	9
23. 나사렛성결회	226	828	20,000	8 (-8)	
24. 예장(근본)	166	182	48,520	7 (-7)	
25. 예장(합동보수C)	682	620	58,200	7 (-7)	
26. 예장(성결)	169	211	87,500	6 (-6)	
27. 예장(합동복음)	218	481	80,494	6 (-6)	
28. 예장(보수개혁)	98	111	7,128	5 (-5)	
29. 기하성(순복음)	206	287	82,400	5 (-5)	
30. 예장(개혁선교)	74	71	26,428	4 (-4)	
31. 예장(합동개신)	98	118	28,756	4 (-4)	
32. 대한기독교하나님의교회	49	89	20,891	3 (-3)	
33. 예장(장신)	248	280	80,500	3 (-3)	
34. 예장(합동개혁)	280	278	16,800	3 (-3)	
35. 예장(개혁합동)	92	92	2,780	2 (-2)	
36. 예장(예장합동)	87	272	12,272	2 (-2)	
37. 기광	88	98	8,880	1 (-1)	
38. 복음선교회	81	70	6,800	1 (-1)	
39. 예장(연광)	48	58	7,000	1 (-1)	
40. 예장(독노회)	22	22	4,670	1 (-1)	
41. 예장(보수)	86	72	7,200	1 (-1)	
42. 예장(합동진리)	187	200	8,500	1 (-1)	
43. 예장(성광)	62	59	7,500	1 (-1)	
44. 예장(보수합동)	96	118	7,426		
45. 예장(정당)	882	484	17,208		
46. 예장(평동)	118	161	28,522		
47.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200	428	26,400		
48. 개인				50 (-46)	6
49. 해외교회	-8,000(미국)		-800,000	201 ()	201
합계	36,277	56,497	10,934,244	2,088 (+ 303)	2,369
50. 기광	8,817(1997년초 기준)	4,882	1,188,478	888 (888) +	
51. 기광	8,817(1997년초 기준)	1,966	810,196	62 (2) +	
52. 구세군	8,817(1997년초 기준)	626	110,199	40 (40) +	

상기한 교단별 할당수가 목표액을 달성한 후 통일이 왔다면 이어 그 자금을 가지고 옛 교회 소재지에다 3,040개 예배당을 세울 것인가를 한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생각과 계획대로 간단치가 않다는데 문제의 고민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초기 한국 선교의 상황을 살펴면서 역사적인 교훈에 귀기울여 보아야 한다.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몇몇 생기면 그들의 염원에 따라 어느 집 사랑방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얼마 후에 대지를 확보하고 예배 처소를 짓는 순서로 진행시켰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돈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고 오직 성도들이 십시일반 격으로 낸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신자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지었으며 거의가 자력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교사 연합 공의회가 내세운 자립 자력 자전의 3자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신자들의 자율에 교회 운영을 맡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와서 남한 교회 성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선교를 펼칠 때 상당한 기간의 전도 행각을 벌리지 않고 곧 바로 예배당부터 지어 줄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한기총에서 수집한 자료가 옛 북한 교회에 국한시킨 것으로 보면 폐쇄된 당시의 예배당 규모에 따라 복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당시 북한 교회는 비록 시골에 소재했다 해도 400명 600명 등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예배당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세울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확고한 계획과 통계에 따른 답변을 내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선교 초기의 예를 참고한다면 그런 역사적인 노하우를 귀감 삼아 자율적인 단계적 건축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가야 한다. 여기에 꼭 명심할 것은 어느 시골 부락의 경우를 보자. 그 부락의 열성 신자들이 주도하되 형편에 따라 소규모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한기총의 재건 계획에 따라 옛 북한 교회 규모대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오는 주민들의 위화감과 이질감은 오히려 선교의 역기능을 일으켜 북한 신자들로부터 무관심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

2. 각 교단 선교의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가. 선교 기구의 단일화 문제

50개 교단이 가입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통일 후 북한 교회의 재건 조건으로 단일 교단, 연합 사역, 독립 운영의 3원칙⁸⁶⁾을 세운 바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단일 교단을 목표로 이를 위해 남한의 각 교단들이 힘을 모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되 교회 운영은 지교회 단위로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선교 전략은 한국의 초기 장로회 선교사들이 세운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그들은 한국에다 하나의 장로회 교단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이 선교 목표였다. 당시 이 땅엔 미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네 개의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를 펼치고 있었다. 이들이 단일 교단을 지향한 이유로 교파주의로 인한 경쟁과 교세 확장을 위한 반목과 질서가 교인들 사이에 편만하다면 전파된 복음이 훼손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 연합 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에서 선교 지역을 할당하여 경쟁자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이른바 교계 예양(arrangement)이었다.⁸⁷⁾

당시 교단별 약정한 선교 구역은 다음과 같다.

- 미 북장로회 선교부 - 평남북도, 황해도, 경상북도
- 미 남장로회 선교부 - 전라 남북도, 충청도 일부 · 호주 장로회 선교부 - 경상남도
-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 - 함경 남북도
- 서울과 평양은 공동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선한 뜻이 해방 후 남북의 분단 속에 모두 무너지고 상호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교인 확보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선교의 단일 기구를 통한 단일 교단의 성립이 될 수 있을까가 문제이다.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를 몇 가지로 들 수 있다.

86) 김중석,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서울: 반석문화사, 1993), 64-67.

87)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209-210.

W. M. Baird, "Union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N.S., Vol. 6, No. 7 (July 1895), 532.

첫째로, 한국 선교 초기와는 달리 현재 선교의 주체는 남한 교회이며 그 남한 교회는 200이 넘는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상 교파주의에 강한 남한 교회가 북한만을 단일 교단으로 설립하고 운영해 간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

둘째로, 북한 선교단에는 실향민들의 염원과 열정이 담겨 있으므로 그들의 고향 교회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강하다. 때문에 옛 교회, 옛 교단이란 소속감을 내세운다면 한 교단을 지향하는 선교나 교회 설립에는 뜻이 없고 다만 향수에 젖은 옛 교회의 재건만을 원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특성이 남한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한 교단 총회에 예측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과거 함경도민의 자유분방한 지역 특성에 따라 캐나다의 자유 신학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것을 도외시하고 그곳에 가령 보수 계열의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이 온전히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교파는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으므로 그 신학에 걸맞는 교단의 정착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로, 남한 교회는 카톨릭의 교황청과는 달리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상호 경쟁 속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깰 수가 없다. 최근 일고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 기구의 출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현존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양대 기구를 통해 상호 경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선교는 NCK와 한기총의 현 조직을 견지하면서 산하 교단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시장 원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 방향이 될 것이다. 한 기구에 의한 통제나 지시를 통해 북한 선교를 이끈다면 성과는 고사하고 열의마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선진국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회가 파송하는 선교사수보다 동교회(同好會)나 지교회가 단독 파송하는 선교사수가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나.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토착화 문제

1890년 한국 선교 초기, 7인의 선교사들은 중국 선교에서 성공을 거둔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고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들었다. 그

것은 바로 3자 원칙에 입각한 선교 전략이었다.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네비우스 방법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네비우스 방법의 4대 요점⁸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장이나 업종에 남아 있어 자급, 자립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몫의 일꾼이 되게 하며, 그 인근 친척 중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둘째, 본토 교회의 운영과 기구 조직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발전시킨다. 셋째, 교회 자체가 인물과 재정을 공급할 수 있을 때에만 전도 사업에 필요한 유자격자를 세운다. 넷째, 본토인으로 하여금 자력으로 교회 건물을 짓게 하되, 건축양식은 본토식으로 하고 그 규모는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선교사들은 상기한 네비우스 방법을 다시 3자 원칙(3self) 즉, 자력 유지(self-supporting), 자주 처리(self-governing) 자전전도(self-propagating) 등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⁸⁹⁾

그러면 제1회 장로교 선교사 연합 공의회는 네비우스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기본적인 선교 정책을 세웠는지 살펴보자. 첫째, 전도의 목표를 상류 계급보다 근로자 계급에다 두는 것이 더 낫다. 둘째, 어머니들의 후대에 끼치는 영향이 자못 중대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특수 목표로 삼는다. 셋째, 시골 읍촌에 초등학교를 설치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남학교에서 젊은이들을 유자격자로 길러서 그들을 교사로 파송해야 한다. 넷째, 장차 한국인 교역자도 결국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니 이 점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사람의 힘이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시키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되도록 빨리 전력을 다하여 정확하게 번역된 성서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다. 여섯째, 모든 문서 산업은 한자 용어에서 벗어나 순 한국말로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진취적인 교회는 자력유지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역자의 비율은 줄이고, 자력 유지의 사역자, 그럼으로써 스스로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을 증가시켜야 한다. 여덟째, 한국인의 대다수가 한국인 자신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우리 자신들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 보다 소수 전도인을 철저

88)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170.

89) W. D. Reynolds, "The Native Ministry," The Korean Repository for May 1896, 202.

히 훈련시켜야 한다. 아홉째, 우리 의료 선교 사업은 장기 입원 환자 또는 장기간 환자의 집을 심방하면서 치료해 줄 때에, 그럼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실례를 보여줄 때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열째, 시골에 와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자기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료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사랑에 넘친 경험을 본받아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⁹⁰⁾

상기한 네비우스의 방법에 따른 장로회 기본적인 10대 선교 정책을 세워 성공적인 선교를 이룩한 것은 북한 선교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면 북한 선교에 대한 정책과 그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첫째, 전도의 대상을 북한 전체 동포로 하되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기성세대와 미성년 세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다. 둘째, 전도 요원의 대상을 옛 공산당 간부가 아닌 피해 계층으로 하고 그들 중에서 소명 받은 자들을 지도 요원으로 발탁한다. 셋째, 전도자의 수요 공급을 위해 전도 요원들 중에 자질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신학교에 입학시켜 지도자로 양성한다. 넷째, 남한 교회 파송 선교사를 이북 전역에 보내 지역 교회를 사역하도록 하고 인근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다섯째, 초기 한국 교회 처럼 3자 선교 원칙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의 도움을 삼간다. 여섯째, 지역 교회는 남한 교회와의 자매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고 신앙 증진을 위해 지도하도록 한다. 일곱째, 남한 교회는 구제 사업을 간접 선교의 방편으로 삼되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 실시한다. 여덟째, 지역마다 고아원과 지체 부자유 복지원을 세우되 남한 교회가 사설에 투자하고 운영은 지역 교회가 맡도록 한다. 아홉째,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학원을 교회마다 개설하여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열째, 북한 교회 성도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연차별로 초청하여 형제애를 나눔으로 써 성도간의 동체감을 주고 삶의 역동성을 느끼도록 한다.

이상의 10대 선교 정책은 초기 북한 선교에 필수적인 것으로 시행되어야 할 요체로써 남한 교회의 희생적인 봉사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향후 북한 선교의 성공을 위해 필히 채택되어야 할 정책이며 전략이다.

90) 전택부, 한국 교회 발전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133. 참조. C. C. Vin 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N.S. Vol. 6, No. 9 (September 1893), 671.

3. 세계 속의 복음 선진국 지향

6·25 사변을 겪은 한국 교회는 전란의 폐허 속에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결과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던 1985년에 800만의 성도 수를 확보한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괄목할 만한 미증유의 성장세였다. 세계 교회는 초기 예루살렘에 내린 성령의 역사가 극동 한국에 임한 것을 목격하고 한국을 21세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음을 입을 모아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이처럼 동양의 선민으로 그 책임 전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지도적 나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고 인구가 8000만을 선회하는 중진 국가로서 그 국력의 비중은 선교의 중심 국가로서 자격을 얻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 선진국의 자격은 무엇이며 복음 지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기독교 인구가 통일 후 17퍼센트(1200만)에서 최소한 50퍼센트(4000만)는 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문화의 정립 그리고 정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세계를 교구로 삼는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 미국 교회보다 많은 5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야 한다. 다섯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생활 기독교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상기한 자격의 조건을 갖추어 때 세계의 귀와 눈이 동방 한국으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확신한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리라”(렘 1:10).

한국 교회는 말세를 맞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룩하겠다는 사명을 느껴야 한다. 세계 속에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된 터 위에 다시 세워야 할 일이 부지기수이다. 이 사명을 한국 교회가 지고 만국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복음 선진국이란 영예나 명예를 얻는 것만이 아닌 지도국으로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회생과 봉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 교회 안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많이 나와야 하고 평신도들이 적어도 그 교육 수준의 준교역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세계 10대 교회 중 7개가 한국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에게서 세계의 신학

을 향도할 신학자가 없다는 것이 반성의 여지를 준다.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힘을 모을 때가 된 것이다. 세계는 이제 말세를 당하여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추수기의 일꾼을 한국 교회가 맡는다는 각오와 실천으로 21세기는 한국교회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교회 성장 운동을 이끈 선교 신학자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acGavran)은 교회 성장학(Understanding Church Growth) 한국판 서문에서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장래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 바 있다.

또 수백만의 인구가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실제로 건설한 기독교국으로서 전 아세아의 등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한국의 사명자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아세아의 수백 나라에 선교사로서 보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내의 복음화와 외국에 대한 선교운동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외지에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그 백성에게 더욱 큰 부흥과 성장을 주신다. 수천의 한국의 아들딸들이 위대한 위탁인 복음과 함께 사도들로서 전 세계에 보내어질 것이다.⁹¹⁾

91) D. A. McGavran,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2).

제 7 장

백령도의 진촌 교회의 대북 선교 정책

제 1 절 백령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역사적 배경

1. 백령도의 어제와 오늘

한반도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동경 124°53' 북위 37°52'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나라 14번째 섬으로서 인천에서 북쪽으로 229km, 뱃길로는 136마일 거리에 있다. 면적은 45.40km²이며 인구는 17개 리에 현재 4,339명이 분포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가 미소 양국에 의해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이 될 때 이남에 속하는 행운을 얻었으며 6·25 동란 중 휴전을 앞두고 서부 전선이 38선에서 0.5도 가량 하향 조절되었으나 이곳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안 5도는 옛 위치를 고수한 채 대한 민국에 머물게 되었다. 그것은 정전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한 뼨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서해안 도서 지역 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백령 지구 해병대 해병 의용대⁹²⁾의 희생 덕분이었다.

백령도는 때문에 지도상에서 보면 이북 영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군사 요충지로 북한 땅과는 불과 15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입지 환경상 특수 지역에 속한다. 도서를 수비하기 위해 미군 대신 주둔한 해병 사단은 경계 태세를 내륙의 북방 경계선 이상으로 긴장감 속에 철저히 갖추고 있다. 고도의 레이더 통신망을 통해 이북의 동태를 살살이 살피면서 오늘도 밤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할만큼 경계를 알리는 쏘리가 섬의 지축을 물리고 있다.

이곳 백령도는 삼국 유사에 의하면 옛 이름이 곡도 혹은 호도⁹³⁾라고 불렀다는데

92) 이들은 원래 육지에서 피난 온 반공 청년들로서 백령도 방위를 담당했던 신주 치안대이며 후에 '동키 1연대', '5연대', '13연대'로 재편성된다. 병력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전자는 고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곳이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이유가 되며 후자는 같은 한자이지만 이 때는 ‘호’자로 부르는데 섬이 넓고 크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이런 미답지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는 3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였고⁹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 나당 연합군을 형성하여 고구려를 칠 때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자 도서민들이 모두 육지로 피난을 감으로써 무인도가 되었다. 고려 시대에 와서 이 섬은 중국과의 교역상 기항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고 백령도라고 개칭한 것은 고려 현종 9년, 1018년의 일이다.⁹⁵⁾ 조선에 들어와 세종 10년에 주민을 입주시켜 목장을 설치하고 군마를 기르게 하였으나 경계가 전혀 없는 틈을 이용, 중국과 조선의 해적들이 몰려들어 황해도 연안은 물론 충청·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국가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 1609년 광해군은 이곳에 처음으로 진을 설치하여 수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장연현에서 분적하여 독진으로 대청도와 소청도 등 주변 도서를 관찰하는 독자적인 행정 단위가 된 것이다.⁹⁶⁾ 그러나 1895년 갑오 개혁의 일환으로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될 때 다시 장연군에 편입되었다.⁹⁷⁾

해방 후 백령도는 38선 이남에 속하게 되고 장연군이 북한에 예속됨으로써 웅진군 백령면이 되었다. 그러나 웅진군 역시 이북에 소재해 있으므로 1973년 행정 개편 때 부천군에 속해 있던 6개 면의 도서를 합쳐 8개 도서군으로 하여 웅진군을 만들었으며 1974년 7월 1일 대청도와 소청도가 대청면으로 승격되어 웅진군은 9개 면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군청은 현재 인천에 있다. 과거 죄수들의 유배지로 이용되던 백령도는 통일을 앞둔 오늘날 대북한 선교 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한 지정학적 조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백령도의 기독교 전래 시기와 교회의 현황을 알아보자.

2. 백령도의 기독교 전래와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현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중국 무역의 중간 기항지요, 해적들의 본거지이며 관서와 호서의 운송 통로이며 중국과 조선의 죄수 유배지였던 이곳 백령도에 기독교의 복음

93) 호 : ① 고니 곡 ② 넓을 호

94) 웅진군지 (인천: 경기 출판사, 1989), 362.

95) Ibid., 1342.

96) 백령진지, 건치연혁조(1802)

97) 웅진군지, 367.

이 언제 들어와 정착했을까? 일반적으로 독일 태생의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vtzlaff: 중국명 귀시래로 발음)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다. 많은 사학자들이 이 점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당시 암헤르스트 경(Lord Amherst) 호를 탔던 귀츨라프 선교사와 동인도 회사 소속 선장이요, 항해 단장이었던 린더제이(Lindsay)의 항해 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실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일지의 서두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배질만⁹⁸⁾ 북쪽에 있는 장산도⁹⁹⁾에 닻을 내렸다. 주위가 정막에 쌓여 마치 사막의 고요함 같았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해변에 올라가 처음 만난 것은 형편없이 만든 어선과 남루한 옷을 입은 두 토착민이었다. 우리는 서로 말로는 통할 수 없었으나 한문으로 필담을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노인에게 책 몇 권과 사자 무늬가 있는 단추를 주었더니 아주 좋아하였다.¹⁰⁰⁾

상기한 기록에서와 같이 배가 최초로 정박한 곳은 백령도가 아닌 백령도 맞은편의 장산곶이었다. 지금까지의 백령도 상륙설은 백낙준의 한국 개신교사의 백령 군도의 오기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백령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1865년 두무진에 상륙했던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 목사였다. 그는 두 달 반 동안 이곳 서해안 지역 어민들에게 성경책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했다. 그가 준 성경책은 99권이었고 이것을 수병들이 거둬들였는데 세 수레나 되었다고 한다.¹⁰¹⁾ 이들 성경이 섬주민에 의해 읽혀졌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한국말을 약간 할 수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구두로 들었을 것은 자명한 일로 볼 수 있다.

98) 배질 만(Basil's Bay)은 1816년 배질 홀 대령이 서해안 측량을 하러 왔을 때 자기 이름을 붙여 명명한 것으로 대청 군도를 말함(이진호는 군산으로 봄) 백낙준은 자신의 논문 “한국 개신교사”에서 이 배질 만을 백령 군도로 오기하여 후세 사학자들에 의한 백령도 상륙설의 뒷받침이 되었다. 참조. 전택부는 한국 교회 발전사에서 “황해도 서해안 장산곶 근해의 백령도에 닻을 내렸다가 뱃머리를 돌려 충청도……”.

99) 최초의 상륙 지점의 원문은 Chawang-shan, an island north of Basil's Bay로 되어 있다. 당시의 이조 실록(1832.8)을 참조하여 이진호는 백령도 맞은 편에 있는 장산곶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100) 이진호, 동양을 섬긴 귀츨라프 (서울: 한국 감리교회 사학회, 1989), 49-52.

101) “황해도 백령도에서 서해안 교회를 찾아서,” 기독신보, 1929년 8월 21일.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894년에 친일 세력을 업은 개화파가 갑오경장을 일으키자 이에 우국 충정으로 올린 상소문이 문제가 되어 백령도로 유배를 온 사람이 있었다. 충청도 공주인 김성진이었다. 그는 허득 집에 유숙하면서 동리 청소년들에게 한문을 훈학하면서 그 집주인과 상의하기를 “내가 서울서 신약(순한문)이라는 책을 사 가지고 왔는데 유교의 사서와 삼경과 대조해 보니 성경이 이 책들의 근본이 되는 것 같소이다. 고로 예수교를 믿어야 현재와 장래에 유망 유효하겠으니 예수를 믿게 해봅시다”¹⁰²⁾ 한즉 허득도 지사라 믿기로 두 분이 굳게 결정을 했다.

1896년 6월 어느 날 동리 사람들을 모아 놓고 김성진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 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전도 강연이었다. 모인 사람들이 이날 밤 모두 믿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서울로 보내 예수 믿는 선생을 초빙해 오고 예수교 책도 사 오도록 한 후 그 일을 김달삼에게 맡기기로 했다. 7월초에 여비를 모아 주며 보내기로 하자 어떤 분의 말이 장연 대꽃면 소재에도 서양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하더라 하므로 김군을 보내면서 그곳에 없으면 서울로 바로 가도록 당부했다. 8월 25일 경에 소재로부터 서경조 장로, 홍종삼 집사와 오씨(성명 미상)를 초청해 왔다. 이들이 동민을 모아 놓고 서당에서 창립 예배를 보았는데 이것이 중화동 교회의 시작이었다. 때는 1896년 8월 25일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은 동리 사람들이 김성진의 말을 듣고 즉시 믿기로 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이다. 첫째, 그들이 서해의 해신을 섬기는 일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만큼 적극적이었으나 매년 풍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¹⁰³⁾ 이때 김성진으로부터 성경에 보니 풍랑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이 그만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믿기 시작한 복음의 열기는 마치 열병처럼 섬 전체로 번져가 크리스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은 백령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가 아닐까? 최초의 교회요 모교회가 되는 중화동 교회의 창립이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신자가 생겨나 교회들을 세워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의 미비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 사실은 성도

102) 허간, 백령 중화동 교회 역사, 4.

103) Ibid., 6.

들의 끊임없는 전도의 결실로 복음의 확산이 섬 전체로 퍼져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도의 열의로 1905년에 진촌 교회와 사곶 교회가 생겨났고 1917년에 화동 교회, 1924년에 가을 교회, 일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기 시작한 1941년에 연지동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백령도의 복음화는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다. 해방 후 1952년 전쟁 와중에 장촌 교회가 1953년에 중앙 교회가 창립되는 영광을 안았다. 1974년에 관광 명소 두무진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1988년에 진촌 교회로부터 분열해 나가 진촌 제2 교회가 출범한 것이다.

오늘날 복음화된 백령도는 섬 이름이 말해 주듯 고니처럼 심성과 모양새가 희고 우아하고 해맑다. 주민들 사이에 범죄가 없고 술집이 없고 사창가가 없는 이곳, 주민들 모두가 착하고 근실한 모습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급자족하는 모범적인 도서가 되어 있다. 면장으로부터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기독교인으로 채워져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현실은 백령도를 빼고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곳이야말로 주민들끼리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의 모범적인 공동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성도들은 백령도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청정한 이 섬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관광 붐으로 인하여 환경이 점차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3. 대북 선교 기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호조건

백령도는 서해안의 한 섬이면서도 일찍 복음화가 된 곳이므로 대북 선교 기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155마일 휴전선의 서쪽 끝자락이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왕래가 가장 용이한 곳일 수도 있다. 15킬로미터 거리의 바다는 군사 경계선이지만 지척에 장산곶이 보이고 해안을 따라 둘러싸인 산들이 보여 마치 이북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분위기에 휩싸인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백령도가 대북 선교의 전초 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발상의 하나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6·25 전쟁 때 이곳이 반공 유격대의 사령부가 있었다는 이유가 성립된다. 당시 전쟁터가 된 황해도 일대는 인민 군대에 쫓긴 반공 청년들이 대거 서해안 도서로 피신한 후 UN군의 선편으로 인천이나 군산, 멀리는 목포와 제주도 등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국충정에 사로잡힌 많은 반공 청년들이 '내 고향 수복'이란 일념으로 도서 사수와 적진 침투에 전념하면서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한 복상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¹⁰⁴⁾ 미 극동 사령부 정보 장교들은 이 사실을 감지하고 충분한 검토 끝에 북한 출신 반공 청년들로 구성된 유엔 한국 유격대를 조직하여 전방 지휘 사령부를 백령도와 강화도에 두었다. 이로써 백령 기지 사령부 예하의 유격대는 대체로 출신군별 무장대를 단위 근간으로 하여 '동키 연대'라 명명하고 전장에 투입했다. 1951년부터 1953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서해 지구 반공 유격전은 황해도 일대를 석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공산군 전투 부대에 대한 습격, 반공 지하 조직 거점의 구축, 자유를 동경하는 북한 양민의 구출(탈출 월남 안내), 한국군 및 미군 첩보 기관원의 대북 공작 지원 등 열두 가지였다.¹⁰⁵⁾ 당시 미8군사령관 뱀프리트가 1952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백령도 기지는 정규군 1개 사단에 맞먹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들의 전과가 놀라울 만큼 컸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전과를 올린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인 이유가 되는 섬의 위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50년 전 6·25 전쟁의 유격대 전초 기지로서 얻은 성과를 잠시 일별하면서 통일을 앞둔 시점에 대북 선교 기지로서 과연 타당한가를 진단해보는 것이다. 첫째, 백령도는 북한 영역과 지척에 있으므로 대북 선교의 의식을 일깨워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지역보다 호조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섬을 지키는 해병 사단의 유격성 전투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데다가 밤마다 지축을 흔드는 폭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다짐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섬 주민의 대다수가 6·25 동란 때 피난 와서 정착한 북한 난민이므로 그곳 풍습과 언어 및 음식 등 생활 양식이 아직도 이북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북한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점이다. 넷째로, 백령도의 진촌 교회는 그 지역 12개 교회 중 규모가 제일 크며 북한 선교를 위한 2층 수련관을 신축함으로써 모든 교육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기 조건들이 북한 선교 전초 기지로서 활용이 된다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진촌 교회의 현황과 대북 선교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다음에서 알아본다.

104) 황해도지 (서울: 주식회사 시사, 1982), 331.

105) Ibid., 333-334.

제 2 절 백령도 진촌 교회의 현황과 대북 선교의 청사진

1. 통일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

백령도에는 현재 해병대 교회와 공군 교회를 합쳐 12교회가 7개 리에 산재해 있다. 주민 4,339명을 상대로 한 10교회와 군인들을 위한 두 교회는 육지의 지역 교회와는 다른 유대감을 갖고 상호 교류하는 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세워진 6교회와 해방 후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교회는 4교회로서 역사가 100년이 넘는 중화동 교회와 최근에 출범한 진촌 제2 교회에 이르기까지 연륜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 교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촌 교회는 설립 연도가 1905년 9월 15일이며 2005년이면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 교회가 백령도에 소재한 12교회 중 모든 행사와 연합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소재지가 면사무소가 있는 진촌읍에 있고 교회당과 교육관의 규모가 다른 교회에 비해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제일 풍부하다는 데 있다. 교세가 청장년 재적수 300명, 평균 출석 230명, 유년 주일 학교 60명, 중고등부 60명, 시무 장로 9명이다. 이 통계는 일반 성도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 군인 교인들이 100여명 출석하고 있다. 그들 중에 성가대, 주일학교, 청년회 등 각 분야에서 대원으로 교사로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진촌읍 언덕바지에 높이 세워진 이 교회는 1998년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목회 비전에 따른 대북 선교의 프로그램이 매우 특이하면서도 백령도의 특색을 살리는 측면에서 만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에 앞서 종래의 42평 규모의 교육관을 헐고 총 296평의 2층 라면조 건물을 신축하여 이곳에 북한 선교를 위한 수련관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백령도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연합 통일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 백령도 소재 10교회는 1959년 총회가 분열될 때 허간의 지도와 인도로 합동측 총회에 잔류함으로써 타교단 소속 교회가 없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연합 사업이나 운동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상 인천 노회에 속하여 있으나 먼

속에 위치한 연고로 백령도 시찰회의 기능이 여느 시찰과는 달리 독자적인 행보로, 이른바 축소 노획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면 이들 10교회는 조국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어떤 준비와 행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조국 통일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지교회 단위가 아닌 10교회 연합 기도회이다. 이날 담임 목사들은 물론 재직들을 위시 성도들 모두가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광고를 단단히 한다. 이 기도회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친교나 정보 교환 차원에서 부수적인 이익도 많아 백령도 크리스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가지는 일이다. 백령도 교회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 주일 새벽 연합 예배를 해병대 교회 본당에서 군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건히 드린다. 이곳은 주차 시설이 좋아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가 있어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셋째, 8-15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 날은 군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최북단 산봉우리 광장에서 모인다. 군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연합 예배는 육지에 있는 유명 강사를 특별히 청빙하여 여느 집회와는 다르게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통일을 위한 내용의 설교를 통해 각오를 다지고 대북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돈독히 일깨워 준다. 이날 기도 인도는 의례 여단장이 하며 기타 순서에는 지역 교회 목사들이 각기 맡아 진행시킨다.

상기한 집회를 가지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진촌 교회는 늘 이 일의 중심부 역할을 다한다. 그러면 새로 지은 수련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더불어 어떤 대북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다음에 살펴보려 한다.

2. 진촌 교회 수련관의 북한 선교 기지화

북한 선교의 기지화로 사용할 건물의 필요성은 재정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2000년에 그 윤곽이 드러났다. 종래의 42평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300평을 세워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평일에는 이 시설을 북한 선교 프로그램에 따른 갖가지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

다. 이 수련관의 특징은 세미나를 위해 물에서 온 수련생들을 기거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는지 방의 배치도는 수련관으로서 (북한 선교 기지 센터)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보자.

1층 145평 : 유치원과 교육실(소예배실), 식당 다용도실

2층 145평 : 교실6, 샤워실2, 사무실1, 숙소2, 소예배실1

지하층 : 6평 보일러실 총 수용 인원 평수 : 250평

다음으로 북한 선교 기지 센터는 어떤 조직과 운영의 스케줄로 되어 있는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를 조직한다. 15인의 이사를 두되 본 교회에서 5인, 백령도 지역 교회에서 5인, 나머지는 전국 교회로부터 북한 선교에 비전과 의지가 있는 5인의 이사를 영입한다. 이 15인 이사회에서 임원진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진은 관장 1인, 부관장 1인, 사무장 1인 사무원 1인으로 하고 교육 담당 약간 명을 둔다. 다음으로 선교 기지 센터의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은 이러하다.

첫째, 소명 받은 탈북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성경 공부와 실천 전도 교육을 시킨다. 이를 위해 이북 5도청과 한기총, NCCK, 탈북자 친목회를 통하여 정보를 받아 활용한다. 둘째, 이들 소명 받은 탈북자들을 강사로 하여 전국에서 선별하여 초청된 교역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스케줄에 따라 강의하도록 한다. 북한의 풍습, 언어, 제도 등 분단 이후의 이질화된 갖가지 문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셋째, 백령도에는 간척지가 많은데 이 버려둔 땅을 당국으로부터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도록 한다. 이 농장은 훗날 남북 교류에 따른 북한 동포 전도대의 양식으로 삼도록 한다. 넷째, 통일된 후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소명 받은 북한 동포들을 대거 초청해 와 전도 특공대 교육 센터로 활용한다. 백령도는 잘 알다시피 황해도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왕래도 쉽고 뱃길 따라 서해안 도서와의 교통이 편리하므로 통일 센터의 기능을 100퍼센트 살릴 수 있다. 6·25 동란 때 유격대 기지로서 크게 성공한 것과 같이 대북한 특히 대 황해도 지역을 위한 전도 특공대 육성은 필히 요구되는 것으로 이 지정학적 호조건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수련 내용을

대략 소개하였거니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갖가지 콘텐츠를 개발하여 접목시키도록 한다.

3.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대북 선교의 의식화 운동 전개

2001년, 21세기에 들어가는 원년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너무나 크다. 남북 교류를 위한 남북 정상간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산 가족의 정기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은 북한 선교 기지 센터의 출범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어진 북한 선교 사명을 실천에 옮길 호조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깊숙이 위치해 있는 백령도의 진촌 교회가 이런 시류를 잡고 헌신적인 북한 선교 기지 센터로 본 교회 교육관을 수련관으로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임을 믿는다.

본 교회가 수련관을 세운 근본 동기는 현하 정부의 포용 정책에 따른 남북의 교류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온 국민이 들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과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데 있다. 남한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분단의 극복을 위한 통일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50년 동안 기다린 긴 세월 탓인지 그것을 뼈아프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무관심(apathy) 상태가 병적인 것으로 판단한 진촌 교회는 무엇인가 의식을 회복시키고 관심을 낳게 하는 사업을 벌여야겠다는 선교 소명 의식에 따라 7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북한 선교 기지 센터의 건립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센터의 첫 사업으로 금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1회 북한 선교 의식화 캠페인에 육지의 목사 100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갖가지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다. 첫째 주문진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 1주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황해도의 장산곶과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최북단 고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야외 통일 기원 집회를 연다. 이 날을 갈멜산 집회로 명명한다. 이때 기도 제목은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내용으로 한다. 셋째로 소명 받은 탈북 동포들을 강사로 하여 북한 각 지역의 지리·풍습·전설·언어 등을 소개하고 토론 시간을 통해 이북을 살살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 분단 반세기 동안 학대와 핍박을 받고 최후 순교에 이른 갖가지 자료들을 전시하고 책자로 꾸며 교재로 삼는다. 다섯째 북한 실상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최근

입수한 북한 영화도 상영해 준다. 여섯째 특별 초청 북한 전문가를 통해 북한 선교에 관한 실정을 청취하고 그 방법론을 듣는다. 일곱째 현재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한기총 NCKK 기타 북한 선교 실무자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선교 현황을 듣는다.

상기한 스케줄에 따라 창립 세미나를 2001년 7월에 단행하여 북한 선교 깨우치기 운동을 점화할 것이다. 현재 45,000교회가 남한 땅 방방곡곡에 자리하고 있지만 북한 교회 재건에 겨우 6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대북 선교를 위한 의식화 캠페인은 절박한 당면 과제로 누군가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진촌 교회가 이 일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바로 백령도가 지리적으로 적소라는 이유가 있고 본 연구자의 대북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감히 내세울 수 있다. 이것은 한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따른 지시로 보고 앞으로의 스케줄에 사탄의 방해가 없길 기도할 뿐이다.

제 8 장

결 론

제 1 절 통일·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

1. 개교회 차원의 대북 선교 관심 진작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면 이 단위의 존재 양식은 곧 그 국가의 존재 양식과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학의 정설이다. 한 교단의 구성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 단위가 교회이며 이 지교회가 살아야 교단이 활성화되고 교단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극명해지는 법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공동 목표에 대한 의식이 전혀 표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맞아 몹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긴 동면에서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교회를 목회하는 교역자들의 의식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 큰 병폐로 남아 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사명과 당면 과제를 외국 선교에 두고 있지만 현재 남북 교류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북한 선교야말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한의 45,000개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북 한선교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50년의 긴 세월에 지쳐서일까? 아니면 무신론 공산당을 미워해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통일 문제를 놓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께 통일 문제를 놓고 매달리지 않는가? 그

러나 통일을 위한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서 풀어야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 말해 주듯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¹⁰⁶⁾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웃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한 것은 자명한 역사적 귀결이었다. 6·25 사변은 한국 교회가 일제 때 사신 우상 앞에 절을 한 죄악을 회개치 아니함으로써 겪은 징계란 것을 훗날에 총회가 두 번씩이나 회개함으로써 인정한 사실이었다.¹⁰⁷⁾

그러면 이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려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회개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 교회가 6·25 사변 이후 오늘날까지 저지른 물신을 섬긴 죄, 탐욕을 저지른 죄, 교만한 죄 등을 용서받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인 남북 통일의 장을 열어 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이북 동포를 무신론 공산당의 패거리임을 내세워 미워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 빨갱이니 주적이니 하면서 50년 동안 동포임을 거절하고 원수로 여긴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북 통일에 한국 교회를 도구로 써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 후에 교회로서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이 일을 즐거이 맡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 통일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독일 교회의 경우는 교세가 서독 인구의 85퍼센트란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공헌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들은 분단 초기부터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 문제를 들고 나와 동서독 정부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일에 화해자의 역할을 다한 것은 큰 업적이었다. 더구나 1983년부터 동서 교회가 공동으로 '평화 주간'을 설정하고 실제 평화 운동을 일으킨 것이 그 한 예였다.¹⁰⁸⁾

한국 교회는 불과 인구의 25퍼센트이지만 독일 교회보다 더 큰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는 우리이기에 이런 슬로건과 통일에 밑거름이 되는 화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기총이 벌이고 있는 북한 교회 재건 캠페인에도 45,000 교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 동포

106) 안부섭, 통일과 북한 선교 전략 (서울: 베드로 서원, 1991), 105-107.

107) 박완신 통일의 그날 (서울: 도서 출판 엠마오, 1989), 134, 135.

108) 서경석 외, 21세기 기독교인의 사명과 비전 (서울: 좁은 문, 1995), 140-141.

돕기 운동에도 어느 사회 단체나 종파보다도 모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온 민족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이 경건과 절제로 무장되어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철학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 목회자는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면서 그곳으로 전 교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빠른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교역자가 우리 주변엔 너무도 많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개척 교회를 하면서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먼저 눈을 뜨는가 하면 대형 교회이면서도 비전이 없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를 도우라는 북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북 교류가 눈앞에 다가오고 50년을 기다린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 교회는 눈을 바로 뜨고 직시해야 한다. 북한 교회 3,040개의 재건을 위해 전국 교회에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00여 개의 교회만이 호응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한 교회는 깨어나서 일을 해야 한다. 교역자는 무엇보다 평신도를 깨우치고 당면한 과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향해 전 교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민족의 과제요, 대북 선교의 비전을 꼭 실천시키기 위해 향도로서 사명을 다할 때 통일은 기필코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각 교단 총회의 대북 선교 적극 참여

우리 나라에는 기독교의 이름 아래 200여 개의 교단이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에 비해 실로 많은 수의 교단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우후 죽순처럼 100년의 일천한 역사에 생겨났을까? 이것은 한국 교회의 병폐요, 무력화시키겠다는 사탄의 작전일 수도 있는 실로 주요한 문제이다.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정도였는데 해방 후 이것이 와해되고 한 교파 내에서 많은 교단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장로파의 경우 150개가 넘는 총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명예를 좋아하는 교역자들의 감투 쟁탈전이다. 교역자의 존재 이유는 성경이 교시하듯 양떼를 돌보는 일이지만 이것을 자

각하는 목회자는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은 사실 목자이지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며 목자가 아닌 목사로서 우뚝 서기를 좋아한다. 어째서 목사인가 목사는 스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휘 선정 자체가 목자이기를 거부하고 양 같은 성도들을 지휘하고 호령하고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목회자군이 모인 노회가 총회는 감투싸움에 해마다 이전 투구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 총대를 매수하는 풍토가 이제는 공공연한 선거 운동으로 전락했다. 이런 풍토에서 당선된 총회장 이하 임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면한 북한 선교는 겉치레일 뿐 여기에 뚜렷하고도 확실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후원금 전달에 많은 비용을 들여 현장에 가는 모습은 과시용 이상의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이북 동포를 사랑하고 북한 선교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총회 임원들은 많지가 않다.

따라서 수백 개에 달하는 교단과 선교 단체들에게 제언한다. 첫째, 총회는 북한 선교에 총력전을 펴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모든 일은 때가 있듯이 찾아온 남북 교류의 아침을 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인민을 무신론의 공산당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동포라는 차원의 핏줄 의식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동포가 지난 5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억압받고 고통 당했던 점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 받는 축복의 민족이 되도록 껴안아야 한다.

오늘날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는 감투 총회가 아닌 정책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결해야 하는 점은 의식의 변화를 스스로 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환골탈태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돈 쓰는 임원 선거 제도를 합동 총회와 같이 제비뽑기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총회의 본회가 종전의 임원 선거에 업무의 태반을 낭비하던 것을 전국 교회를 지도하고 향도하는 정책 교단으로 탈바꿈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남북 통일과 대북 선교에 총력을 쏟는 생산적인 총회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대북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책임

1.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지향

기독교는 원래 분열이 아닌 통일 지향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하나가 된다는 명제는 창조적 원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필히 요구되는 존재 양식이다. 이 세상은 타락 이후 모두 분열되고 분리된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 내면적 모습은 하나의 것을 회복하려는 지속적 투쟁이요, 염원의 한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많은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오는 영광으로 그 방법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이며 우리 말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의 구세주(救世主)이다. 이 그리스도는 이름의 뜻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 계층에 속한 엘리트들이다. 이런 3대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는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존재 이유가 마치 3위 1체에서 볼 수 있듯이 불가결한 구조적인 것으로 이것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왕의 직분과 기능은 무엇인가? 왕은 지상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러한 칭호를(삼상 12:12) 받고 있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사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치는 국토의 방어와 정의 수호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통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대변자를 뜻한다. 시대의 변모나 결과를 예언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현재의 불의와 잘못을 질책하고 규탄하는 비판 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질타뿐만 아니라 광정하도록 요청하는 이중 사역을 맡은 분들이다. 따라서 선지자는 ‘예언자적 자세’를 견지하여 정부 당국자들의 논의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민족의 환경과 역사의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 위치와 사도적 위치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¹⁰⁹⁾

끝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 맡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자로서 위로의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화평의 대변자이자 용서와 화해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이다. 평화 의식을 심어 주고 중재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남북 통일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나 결과 후의 일이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서가 붙은 것이 성경적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상기한 '그리스도 안에서'란 조건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 통일, 민족 통일에만 정신이 팔려 교회가 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직책을 유기하고 오로지 정부의 통일 수순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당면한 인권 문제, 종교 문제, 공산당의 잔학성 등 규탄해야 될 일이 산적되어 있지만 병어리가 되어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7, 80년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규탄하던 NCCK가 최근엔 정부의 햇볕 정책이 효과를 보자 북한에 대한 갖가지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통일과 선교의 방법론에 가난한 북한을 돕기 위해 구제하는 제사장의 역할에만 전력하지 말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요 기독교가 염원하는 통일일 것이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기본책은 바로 통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¹⁰⁾

2. 남한 교회의 물량주의와 우월주의 문제

인류 역사상 있는 자의 횡포는 없는 자를 위축케 하여 사회의 융합과 진전에 차질과 후퇴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 정치인은 갖가지 정책을 세우고 종교인은 그 들 심령에 호소하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이 이들 두 계층간의 존재 양식이다. 우리는 90년대에 들어와 40년만에 이웃 나라 중국과의 수교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조선 동포가 사는 연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민족적인 큰 축복이었다. 그들은 반세기 동안 두절되었던 동포들을 만나고 이산 가족의 회한과 찢줄의

109) 조동진,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통일 환경의 변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의 준비" (총회 교육부 주최 민족 통일과 민족 교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1995년 2월).

110) 형상사 편집부,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서울: 형상사, 1989), 314.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후에 벌어진 남한 동포들의 물량주의와 우월주의의 행패가 그것 못사는 동포들의 가슴에 찢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준 것은 있는 자들의 오만과 횡포였다. 이처럼 남한 동포들이 조선 동포에게 남긴 상처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자기는 부자이며 재산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돈을 물 쓰듯이 뿌리고 둘째,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여 조선 동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에게 준 오만과 우월주의는 오히려 그들에게 허탈과 좌절을 안겨다 주고 증오와 혐오심을 일으켜 심지어 어떤 경우 살인으로 몰아가는 끔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난한 그들을 대할 때, 배우지 못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비위생적인 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숭배에 빠진 골수 인민을 만났을 적에 여기에 기필코 자제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물량주의를 자제해야 한다. 생활의 여유가 있다 해서 그들에게 돈을 과시하거나 심지어 인격을 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날 가난하게 살았던 세월을 늘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특히 물량주의로 마을마다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 주고 고급 음향기를 시설하여 자본주의 냄새를 풍긴다면 반세기 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보다 낙심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 남한 동포를 외면하려는 생각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동포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자극이 되는 물량주의 공세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월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남한 동포들이 좋은 경제적 여건 하에서 모두 고등 교육을 받아 북한보다 의식이 앞서고 문명의 척도가 높다고 하여 그들을 깔보거나 업신여긴다면 이에 더 큰마음의 상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이다.¹¹¹⁾ 우월주의는 상대방을 비하하고 멸시하게 하는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상을 얻으려면 예수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바 있다.

111)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1), 259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6).

우리는 통일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의 교류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남한 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량주의와 우월주의를 자제하고 북한 동포에게 진심으로 벗출의 정을 표하는 모습이 얼굴과 행동에서 비추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필히 요구되어진다. 통일의 과정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며 통일 후의 새로운 조국 건설도 쉬운 우여곡절을 겪어야겠지만 먼저 명심할 것은 물량주의와 우월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자제하는 남한 동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허문영의 통일과 기독교인의 역할이란 글에서 지적한 국토 통일에 따른 또 다른 장벽이 생긴다는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 독일에는 국토상의 장벽이 무너졌으나, 심정상의 장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¹¹²⁾

3. 시장 원리에 따른 선교 전략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경제는 크게 보면 기획 경제와 자유 경제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해 통제를 하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자율적 시장 원리에 맡기는 자본주의 경제를 말한다. 이 두 경제 원리는 한 세기를 이끌어 온 쌍두 마차였으나 불행히도 공산주의의 기획 경제를 채택한 소련을 위시 동구라파 나라들이 무너짐으로써 통제는 창의성과 경쟁성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같은 통제와 자율의 경제 법칙은 어느 곳에서도 적용이 된다. 선교는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통제가 한 기구에 의해 진행될 때 과연 ‘성공의 비율이

112) 서경석 외, 21세기 기독교인의 사명과 비전, 113.

참조. 허문영은 현 성균관대·강원대 강사이며 민족 통일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어느 정도가 될까’, ‘아니면 자율에 맡겨 펼쳐질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요, 전략일까’ 하는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진행하거나 통일 후의 선교 문제를 펼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를 간접적으로 논한 바 있다. 한기총의 주장은 한 기구 아래 각 교단이 참여하여 선교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내세웠다. NCCK도 북한의 그리스도교 연맹측과 제휴하여 북한 선교를 지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종화는 통일 이후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성격은 교파 교회가 아닌 ‘연합 교회’의 그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¹¹³⁾

우리는 여기서 한 기구의 통제된 체제를 통해 북한 선교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그 효율 면에서 보면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울 사도의 선교 행적을 보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선교사 파송 주체는 안디옥 교회였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그들을 구브로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큰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성령이 맺어 준 선교팀을 사소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체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기 떠나감으로써 선교팀 재조직을 성령의 지시가 아닌 자기들 의지에 따라 감행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교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명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시장 원리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이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 원리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는 이 원칙 아래 북한 선교를 각 교단의 경쟁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기총이나 NCCK 같은 연합 기구는 선교 지휘 본부가 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각 교단 또는 각 교회에 나누어주는 정보부 역할에 그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교단은 산하 노회가 있고 노회는 그 산하에 지교회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단결심이나 추진력은 어느 연합 기구보다 강하므로 그들이 북한 선교의 첨병이 되어야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인 선교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 교회는 누구에게나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가든 노회가든 교단이든 간에 원하는 이에게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

113)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260.

요청된다. 연합 기구는 이들을 유치하고 격려하기 위한 갖가지 북한 선교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 기구로 되어야지 북한 선교를 일일이 챙기는 감독 기구나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령부로 격상될 때 북한 선교의 미래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선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교회 발전의 주체가 북한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자주적인 교회 부흥의 노력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 노력에 임해야 한다. 북한 교회는 우리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눌 '주체'인 것이다.¹¹⁴⁾

114) 서경석 외, 21세기 기독교인의 사명과 비전, 128-129.

부록 1

한국 교회의 통일 정책 선언문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 한반도 내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복음에 대하여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북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과제인 선교와 직결되고 있음을 고백한다.

해방 후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부흥하였고, 받은 바 축복이 컸음을 감사하거나와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의 책임 특히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한다.

한편, 국민들간에 통일논의는 있으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삶의 자세 변화를 포함해 제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해 가야 할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 기독교계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하고 1200만 성도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이 제시되어야 할 매우 긴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힌다.

통일 한국의 상(像)

1. 통일 한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민족공동체이어야 한다.
2. 통일 한국은 자유와 평등, 평화의 나라이어야 한다.
3. 통일 한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이어야 한다.
4. 통일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질서가 운용되

는 나라이어야 한다.

5. 통일 한국은 모든 계층간·세대간·지역간의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유기체적 화합을 지향하는 나라이어야 한다.

6.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이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중계적 위치에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도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웃나라들과 협력과 발전을 이뤄 가는 나라이어야 한다.

통일의 방법

7.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맹목적 통일지상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부합되는 통일을 추구한다.

8. 통일은 모든 폭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통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심리적 통일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11. 통일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2. 통일 후, 각 지역의 새로운 건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그들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실천 과제

13. 우리는 남한 사회가 내부의 제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론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과 북한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이 됨을 강조한다.

14. 남한 당국은 '통일한국의 상'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하며 북한 당국도 통일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적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15. 한국의 기독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통일운동에 선도적 책임을 다하며 통일을 위한 교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6. 우리는 북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돕는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나 탈북동포 지원사업 및 북한교회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996년 12월 17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가맹 49개교단교단장 및 13대 기관단체 단체장 및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전문위원, '한국교회의 통일정책선언' 공포를 위한 공개정책회의 참석자 일동-

부록 2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¹¹⁵⁾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창 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 8:14-17; 갈 3:26; 4:7)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 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눅 4:18; 요 14: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었으나 다시 부활하였다(행 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였다(마 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 14:18-21; 16:13-14;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골 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한국 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

115) 이 선언은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 교회 본당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제 37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기립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고, 남북한의 정부 책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 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 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 말씀이 명하는 대로(눅 4:18-19)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일제의 노예가 된 한국 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하여 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서 찾지 않았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사 32:17)이어야 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없거나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렘 6:13-14)일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때의 한국 교회의 평화 운동은 곧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노예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민족해방 운동이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였고, 국가주의를 종교화한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 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 또한 북한을 떠난 이산가족들과 교우들을 교회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군사 독재 정권은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 성장 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민족 분단의 현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 구조와 이념 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과 상호 분쟁 속에서 한국 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국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목 하에 설정된 남북 분단선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에는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으며, 국제적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만 명, 중공군 1백만 명, 미국군 14만 명, 유엔군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백 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브리테니커 백과 사전 1970년도판 통계임). 그리고 3백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 공산 정권과 대립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 만의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국전쟁 동안 적지 않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한편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이념 전쟁의 제물이 되었고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는 계속해서 동서 냉전 체제의 국제 정치적 갈등과 반목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비경쟁과 상호 불신, 상호 비방과 적대감 정도 점차로 증가되어 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었고 민족의 화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졌던 ‘휴전선’이 영구 불변의 ‘분단선’처럼 되면서 남북 분단의 벽은 높아져 갔고 남북한의 두 체제는 단절과 대결 속에서 적

대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었고, 북한 병력 84만과 남한 병력 60만을 합하여 근 1백 50만 군대가 무장 대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겨냥되고 있는 핵무기는 이 땅을 없애 버리고 도 남을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양체제에서 모두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인권은 유린되어 왔으며,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서신 왕래도 방문도 통신도 두절된 양쪽은 한 땅덩어리 위에서 가장 멀고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다. 남북한의 교육과 선전은 상호 비방 일색이며, 상대방을 상호 체제 경쟁을 통하여 약화시키고 없애야 할 철천지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들은 동족의 생활과 문화에 대하여 서로 무지할 뿐 아니라 서로 알아서는 안 되는 관계로까지 길들여져 왔다. 양 체제는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대화의 길은 1972년 이른바 7·4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어 트이기 시작하여 대화와 협력과 교류에 희망을 갖게 하였다. 1985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극히 한정되었으며 대화와 협상은 끝없이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 정권에 대하여 깊고 오랜 불신과 뼈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그대로 지닌 채 반공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해 왔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면서 분단 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1. 한국 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 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 22:37-40)을 어기는 죄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시 33:16-20; 44:6-7)를 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서 냉전 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민족 예속화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롬 9:3)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2.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민족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 통일 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출 20: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행 4:19)이다.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 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요 13:14-15; 4:20-21)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17)이다.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 원칙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엡 2:14-17)을 실천해야 하며, 동족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바로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통일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984년 이래 수차례 걸친 협의 모임을 통하여 민족 통일을 향한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972년 남북간에 최초로 합의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1) 자주, 2) 평화, 3)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 및 협상, 실천 속에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2.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분단 체제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 교회의 건의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 년 간 분단 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 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 민족 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가족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파되어야 한다.

2. 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 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 논의를 독점하여서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 논의와 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 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 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신뢰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 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 자원 등에 관한 학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동 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 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다) 과다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비를 줄여서 평화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남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있어서는 주변 강대국이나 외세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치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 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합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골 1:20)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해방을 위한 선교 사역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고백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고전 12:12-26)을 믿는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최근 몇 년간, 놀랍게도 우리와 떨어져 있던 북한 사회 내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 옴으로써 우리의 이 같은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이 한반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해방 사역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입각하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 분단의 고통에 동참하고 통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 선포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19).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레 25:8-10). 희년은 ‘해방의 해’이다.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의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11-55)이다. 한국 교회가 해방 50년째인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는 것은 50년 역사를, 아니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믿으면서 평화로운 계약 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오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희년을 향한 대행진은 희년 대망 속에서, 민족사 안에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교회는 ‘희년을 향한 대행진’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 갱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가) 평화와 통일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 일치를 위한 선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 희년을 선포하는 한국 교회는 ‘참여’를 제약해 온 교회의 내적 구조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는 평신도의 선교 사역에의 참여는 과감하게 개방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3.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결단을 하

는 신앙 공동체로서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폭넓게 시행해 나아갈 것이다.

가) 한국 교회는 평화에 관한 성서 연구와 신학 연구 등 평화 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각종 신학 연구 기관과 기독교 교육기관은 이를 위하여 정보 교환과 연구를 촉진시킨다.

나) 한국 교회는 민족 통일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분단 구조 및 분단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단 문제에 관한 신학적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는 통일 교육을 촉진시킨다.

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결단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고 이념적인 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킨다.

4. 한국 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선포하는 희년 축제와 예전(禮典)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해 나아간다.

가) 한국 교회는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기념하는 '평화와 통일 기도 주일'을 설정하고 예배 의식을 개발한다. 이 예배 의식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 분단의 죄책 고백, 소명과 결단, 분단의 희생자들과 분단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민족 화합을 위한 신앙고백, 말씀 선포(희년 선포), 찬송과 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성례전 등이 포함된다.

나) 남북한 교회의 상호 왕래가 실현된 때까지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와 통일 기도 주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

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 왕래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남북으로 헤어진 친척과 교우, 친구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5. 한국 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간다.

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선포는 신앙고백의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

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앙 고백적 행동과 실천을 가맹 교단 뿐만 아니라 비가맹 교단과 천주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소명은 한반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과제이므로 한국 교회는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북한 교회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건이므로 한국 교회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 4개국 내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세계 교회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연대 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라) 한국 교회는 타종교 및 타운동들과의 대화를 확장, 심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의식을 촉진시켜 공동 연구와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1988년 2월 29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부록 3

8·15 공동 선언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CCK)는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 특별 연합 예배 및 한국 교회 신도 대회를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남북정상회담(6월 13일-15일)의 성공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 드렸으며 민족 화합과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8·15공동선언)은 복역의 때를 마치고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감격과 같은 사건이요, 분단에서 해방되는 제2광복의 환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화를 향해 다가서게 하였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6·4 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뜻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을 섬긴 죄와 각종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되고 남을 판단하여 정죄한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리고 역사적인 온갖 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회개한다.

1. 우리는 교단의 갈등과 분리로 화합과 일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성한다.

1. 우리는 한국 교회가 2000년 8월 15일을 맞이하여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켜 주실 것과 예배시 드려진 헌금은 모아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을 호소한다.

1.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져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와 인류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라며 기도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불우한 이웃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 운동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00년 8월 2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 장 강 성 환

총 무 김 동 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이 만 신

총 무 박 영 료

부록 4

호소문

지금도 북녘 땅에는 곳곳에 김일성(김정일) 우상이 있어 그 앞에 참배하며 금수강산 바위마다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선전 휘호가 성경의 시편처럼 새겨져 있고 3만 6천 개의 동, 리엔 김일성 사상 학습당이 교회처럼 자리잡아 그곳에서 주체사상을 학습 받고 그것도 모자라 집집마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안방에 걸어 두고 우상처럼 받들고 있으며 거기다가 전인민들의 왼쪽 가슴에 김일성 초상 휘장을 달고 자기들 가슴에 김일성 수령님을 모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탈북 귀순자들은 통일의 걸림돌은 북한 인민들 가슴에 새겨진 김일성 신앙이라 말하고 통일 전후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통일 후 종교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여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북한 선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호소합니다.

통일·북한 선교 총력 100만 선교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성별		소속교회	
E-Mail				연 락 처	
직장				직 위	
주소					
선택현금	V 표시 북한교회재건□ 북한동포돕기□ 탈북동포선교□ 선택현금북한내지선교□ 귀순동포결연□ 통일선교연구□ 통일일꾼양성□ 선교파송후원□ 문서사역후원□				
헌금약정	매월 5,000원() 10,000원() 20,000() 30,000() 50,000원() 100,000원() 기타(원)				
송금방법	자동이체()은행()지로() ※신분증, 통장,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일정금액을 통장을 통해 지원가능함.				
송금계좌	지로번호 7621819(남북위) 7643965(돕기선교) 국민은행 008-01-0573-212(한기총남북위) 008-01-0579-814(한기총돕기선교) 008-01-0577-358(한기총북재위) 008-01-0580-862(한기총통일선교대학) 농 협 027-01-488471(한기총돕기선교) 우 체 국 010793-0122197(한기총남북위) 한미은행 114-51043-242 / 한기총귀순동포결연사업본부				
2000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우리가 조금씩 힘을 모은다면 "통일과 북한선교"는 21세기에 곧 이뤄질 것입니다. 정기후원을 결정하신 후 02)745-0191(代) 한기총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원 가입교회나 설도여거는 E-mail을 통해 긴급기도제록 발송 및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세미나에 초청하여 상세한 선교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고범서. 기독교 정의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78.
- 권성수. 신앙인의 현실.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 김동완. 한국 교회 평화 통일 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2000.
-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도서 출판 엠마오, 2000.
- 김영한. “개혁주의 평화 통일 신학.” 목회와 신학.
- 김중석.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서울: 반석 문화사, 1993.
- 김학준. 북한 50년사. 서울: 동아 출판사, 1995.
- 김행식. 한민족의 항쟁. Vols. 1-3. 서울: 복지 문화사, 1996.
- 김형석. “북한 선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강의안, 한기총 통일 선교 대학).
-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Vols. 12, 20, 22, 27, 28. 서울: 동아 출판사, 1983.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 박완신. 통일의 그날. 서울: 도서 출판 엠마오, 1989.
- _____. 외. 평화 통일과 북한 복음화. 서울: 쿤란 출판사, 1997.
-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1.
- 방상훈. 조선 일보 70년사. Vols. 1-3. 서울: 조선 일보사 편찬 위원회, 1990.
-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서경석 외. 21세기 기독교인의 사명과 비전. 서울: 좁은문, 1995.
- 안부섭. 통일과 북한 선교 전략. 서울: 베드로 서원, 1991.
- 양호민. “시론.” 조선일보. 1989년 4월 4일자.
- 오문환. “황해도 백령도에서 서해안 교회를 찾아서.” 기독신보. 74호 14권, 34.
- 웅진군지. 인천: 경기출판사, 1989.
- 유관지. 극동 방송 40년사. 서울: 극동 방송사, 1996.
- 이진호. 동양을 섬긴 귀출라프. 서울: 한국 감리교회 사학회, 1989.
- 전택부. 한국 교회 발전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 정의순. 신의주 하늘에 비쳤던 큰 별. 서울: 진명 문화사, 1992.

최석채 외 편, 해방 20년, 일지·문헌·요람(자료편) 서울: 세문사, 1966.

최 정, 통일로 가는 길, 서울: 언론인 클럽, 2000.

한국 기독교 신도 공동선언 실천 운동 본부 편, 한국 교계의 여론: 자료집, 1989.

한국 기독교 연합회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 서울: 진리와 자유, 1995.

_____, 북한 교회 재건 백서, 서울: 진리와 자유, 1997.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통일 선교 대학, 새 천년 복음 통일을 준비하라 (1학기 강의안, 2000).

허 간, 백령 중화동 교회 약사.

형상사 편집부,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서울: 형상사, 1989.

황병덕 외, 신 동방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 서울: 도서 출판 두리 미디어, 2000.

홍승면 외, 해방 20년: 기록편, 서울: 혜문사, 1965.

]

2. 번역 서적

Erickson, M.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McGavran, Donald A.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웅 역, 서울: 보문 출판사, 1974.

3. 외국 서적

Baird, W. M. "Union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n.s. 6/7 (July, 1895).

Bromiley, Geoffrey W. The Unity and Disunity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58.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Hanson, Stig.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Colossians and Ephesians, Lexington: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1963.

Kik, J. Marcellus. Ecumenism and the Evangelica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8.

Murch, James Deforest. Cooperation without Compromise. Grand Rapids: Eerdmans, 1956.

Reynolds, W. D. The Native Ministry: The Korean Repository for May 1896.

Tilich, Paul. My Search for Absolutes. ed. Ruth Nanda Anstl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9.

Wolterstorff, Nic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7.

Vita of
Woong Ki Mi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Jinchon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 January 14, 1942
 Marital Status : Married to Yong Ja Kim with three children
 Home Address : Ongjinkun Baekryungmyun Jinchonri 1069
 Incheon, Korea.
 Phone : Home: (032) 836-0040, 9191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Ordained : October 15, 1985

Education

B.A. : Chungbuk University, Chungju, 1964
 M.Div. :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5
 M.A. :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Seoul, 1989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1

Personal Experience

11/1985 to 10/1996 : Senior Pastor
 of Nambujungang Presbyterian Church, Seoul
 11/1997 to 08/1998 : Senior Pastor
 of Hann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Euijungbu
 09/1998 to present : Senior Pastor
 of Jinchon Presbyterian Church, Incheon